

# 한우미당

vol.197

Hanwoo Journal  
2023.04



4월호 표지 이미지

- 32 **권두언**  
전국 최초 우량암소 3천두 돌파  
박완수 경남도지사

## 기획특집

- 34 **2023년도 경상도 한우정책 토크아보기**  
38 **한우도지회장이 간다!**  
특별대담-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  
44 **이달의 한우인**  
이달곤 국회의원

## 현장·탐방

- 48 **대한한우 농가탐방**  
전북도지회 완주군지부 장안자 회원  
52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VIV ASIA 2023 탐방기



## 이슈·동향

- 58 국제곡물 동향과 사료가격 전망  
64 3월 한우동향분석  
72 글로벌뉴스  
76 2024년부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송지숙 농축산위생품질팀장

## 사양·컨설팅

- 82 컨설팅  
BA플러스  
86 수의칼럼-질병·방역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90 전문가칼럼-개량  
한국종축개량협회 김병숙 경기인천지역본부장  
94 2022년 한우사육농가  
경영실태 및 농가인식 조사

## 문화마당

- 102 꿈을 현실로 만드는 다이어리 성공법  
106 제철음식으로 나른한 봄 즐기기  
봄철 면역력 키우는 한우요리  
110 협회사료 안내  
112 구독안내



전국한우협회

www.kistock.co.kr

대한민국 축산의  
가치와 연속성  
Value & Continuity  
of K-livestock

#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 Korea International Livestock EXPO 2023

2023. **9.6**(수) ~ **8**(금), 3일간 / **대구 EXCO** 서관 1층 전 홀 및 야외

## 전시 참가 기업 모집

**참가 신청 기간** 2023. **1.9**(월) ~ **5.31**(수) ※ 선착순 /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

**참가 신청 방법** 1) 박람회 홈페이지 접속 (www.kistock.co.kr)  
'참가 신청 안내' 및 '참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참가 신청 또는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사무국 메일/팩스로 제출  
2)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계약금(참가비 50%) 납부

**사무국 연락처**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사무국  
Tel | 02-574-0465  
Fax | 02-521-4049  
E-mail | kistock2023@gmail.com

## 전국 최초 우량암소 3천두 돌파 개량-품질 고급화로 명품한우 육성 스마트축산 시스템 구축...생산성 향상



<월간 한우마당> 가족과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지사 박완수입니다. <월간 한우마당> 4월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경남도는 33만 여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어 전국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우량암소 3천두를 돌파해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축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이 끌어주고 계신 한우농가와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먹거리의 보고이자, 농촌 경제의 핵심 성장산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소 특유의 역동성과 우직함도 함께 느낄 수 있어 한우산업이 가진 다원적인 기능은 공익적 가치로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우산업이 최근 사료 가격 인상과 축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한우 소비가 급감하는 등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축산환경 규제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에서는 '개량과 품질 고급화로 명품한우 육성'을 목표로 명품한우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와 스마트축산 시스템 구축으로 더 나은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간 한우마당>이 대한민국 축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 언론으로서 더욱 번영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경남도지사 박완수





## IT기반 최신 스마트 경매시스템 도입

경남도 가축 사육현황

(단위: 천마리, %)

구분	계	한우	젖소	돼지	닭
경 남 도 ( A )	12,570	333 (10,671호)	24 (370호)	1,285 (612호)	10,928 (147호)
전 국 ( B )	191,417	3,694	390	11,124	173,136
점유율(A/B)	6.5	9.0	6.2	11.6	6.3

※ 2022.12월 기준(통계청)

더 나은 가축사육 환경 조성 ‘축산 스마트화’ 추진  
축산 악취, 사료값 상승 등 적극 대응...경쟁력 강화

총 10,542.62km<sup>2</sup> 면적에 1,516,930세대, 3,346,658명이 살고 있는 경상남도는 8개 시, 10개 군, 5개 행정구, 305개 읍·면·동으로 이뤄져 있다. 농림업 경지면적 138,185ha에서 244,924명의 농가가 농림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으로 한우우 농가만 1만호가 넘는 축산도다. 올해 경남도에서는 총 1,133억4,500만원의 예산이 축산분야에 쓰인다. 지난해보다 4% 이상 늘어난 예산으로 경남도의 한우농가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 전국 최초로 스마트 경매시장을 구축해낸 저력있는 경남도의 축산정책을 중심으로 경남도의 한우정책을 알아본다.

### 깨끗한 선진축산업 육성 1,028억원 투입

경남도는 올해 총 53개 사업에 1,02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산 악취, 사료값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 적극 대응해 경쟁력 있는 선진축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국비 184억원, 도비 88억원, 시군비 224억원, 융자 273억원, 자부담 259억원으로 총 1,028억원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축산 악취 저감 및 분뇨자원화, 사료 자급기반 구축, 스마트축산 시스템 보급, 축사시설 개선, 가축개량 및 가축 생산성 향상 등이다.

경남도청 손영재 축산과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사료값 상승과 산지 소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업 여건이 어렵지만 사료 자급기반 구축, 스마트축산 확산 및 노후시설 현대화, 친환경 축산 인프라 구축,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등 농가 경영안정과 소득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가축분뇨 및 축산환경 개선 사업

먼저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축산 악취 저감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단위 악취관리 ▲가축분뇨 이용촉진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악취측정 정보 통신 기술(ICT) 기계장비 ▲가축분뇨 에너지화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악취방지제 등 9개 사업 228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가축 사육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최적의 가축 사양관리를 위한 스마트축산 시스템 보급과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선을 위해 ICT 융복합 보급,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등에 277억원을 지원한다.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사업  
신규로 추진  
  
한우개량 촉진  
생산성 향상  
고급육 생산 주력

## 생산비 절감 및 시설 개선 사업

사료 자급기반 구축과 사료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조사료 종자구입 ▲조사료 품질관리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조성 ▲조사료 기계장비 ▲옥수수 전용수확장비 등 3개 사업 10종에 182억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를 추진한다. 최적의 가축 사양관리를 위한 스마트축산 시스템 보급과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선을 위해 ▲축산분야 정보 통신 기술(ICT) 융복합 보급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축사시설 현대화 3개 사업 277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축산분야 정보 통신 기술(ICT) 융복합 보급은 민선 8기 도정과제로 채택했다. 기존 30% 국비보조 지원에서 올해부터 지방비 10%를 추가 보조 지원하여 축산농가 부담을 줄인다. 또 가축개량과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개량 및 품질 고급화 등 27개 사업에 245억원을 지원하여 축종별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축사화재, 폭염 등 재해로

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2개 사업에 61억원을 지원한다.

## 최신 스마트 경매시스템 도입, 가축시장 거래 질서 확립

전국 최초로 스마트 경매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는 경남도는 올해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915-210번지 일원에 최신 스마트 경매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가축경매시장을 만든다. 경남도청 강병기 한우계장은 “기존의 한우 오프라인 경매시스템의 시간과 장소의 불편함 개선을 위해 고성군 가축시장 1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한우 스마트 경매시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시장 휴장 시 인터넷 전자 경매를 통한 비대면 거래로 전염병 전파 방지와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한우개량 및 품질보급 등을 통한 가축개량과 사육 생산성 향상 사업과 함께 유기동물 캠페인 등 고른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축사 전기안전 보수에서 가축재해보험까지

경남도에서는 노후화 된 축사 전기시설 사전점검 유도를 통해 전기원인 화재를 예방하는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사업이 신규로 시작된다.

올 한해 동안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를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개소당 300만원 씩 지원되며 전기안전 정기점검·정기검사 및 전기시설 보수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축사 전기설비 사전점검 및 보수로 전기합선 또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 정전피해 등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량 전기시설 보수를 통한 화재예방으로 축산농가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축사발생 화재 원인의 49.2%가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이며, 화재발생 시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POWER INTERVIEW

### 축산조직-단체-농가 뜻 모아 '청정축산' 실현

지난해부터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가격인상에 글로벌 경제위기까지 닥치며 대내외적으로 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부임한 경남도청 손영재 축산과장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지만 위기를 큰 기회삼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행복한 축산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자급 사료기반 구축, 스마트축산 확산 및 노후시설 현대화, 친환경 축산 인프라 구축,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등 농가 경영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축산조직과 단체, 농가의 뜻을 모아 청정축산 실현과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손 과장은 최근 한우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우산업은 그동안 시장개방 확대 위기에도 불구하고 1인당 소비량 증가, 사육두수 확대 등 큰 성장을 거

듭혀 왔습니다. 최근 한우 출하두수 사상 최대, 수입물량 증가, 사료값 상승, 고물가에 소비둔화로 한우고기 가격이 떨어

지면서 한우농가들의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손 과장은 농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소비촉진, 사료구매자금 지원, 조사료 생산 확대 등 다양한 한우시책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에서도 송아지, 번식용 암소 입식차제, 가임암소 감축 등 자발적 수급관리를 통해 한우가격안정화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손영재  
경남도청 축산과장



## 특별대담

“전략작물직불제 관련  
별도 자금지원  
한우농가들 숨통 틔어줬다”

“한우농가들과 상생방법  
고민해서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책 펼치겠다”



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

손영재 경남도청 축산과장

한우우 농가만 1만 호가 넘는 축산 일번지 경남도는 지난해보다 4% 이상 늘어난 예산을 축산분야에 배정, 올해 보다 면밀하게 축산농가들의 경영과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우 분야에는 총 637억8,000만원을 투입해 한우 개량과 농가 생산성 향상, 고급육 생산 확대까지 3개 분야를 골고루 돌보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모바일 경매시스템 플랫폼이 구축된 합천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모바일 경매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에서도 고성 등의 한우 스마트 경매시장 구축에 박차가 더해질 전망이다.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 사무국장 출신으로 잔뼈가 굵은 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은 경남도의 한우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경남도청 손영재 축산과장을 직접 만나 경남도의 한우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한기웅 도지회장** » 경남도에서는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해 주는 편이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한우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올해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전략작물직불제와 관련해 도에서 별도로 자금을 지원해 한우 농가들의 숨통을 틔어줬다.

**손영재 과장** » 전략작물직불제와 관련해 올해 정부 시책을 보면 지난해 벼를 재배하고 올해 하계 신곡으로 조사를 재배한 논에 ha당 4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에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전략작물직불제에 참여하는 농가들에게 ha당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 시책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등을 통해 벼를 재배하지 않은 농가들이 있었다. 정부의 시책을 따른 선량한 농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 건의를 했다. 그 결과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정부시책 등에 참여하며 벼를 재배하지 못한 일부 농가에게도 ha당 43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열심히 일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했다.

**한기웅** » 경남도에서는 하계 작물로 옥수수를 많이 심는다. 그런데 농가들이 한꺼번에 심으니까 기자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한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손영재** »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으로 국산 조사료 신뢰도 향상과 조사료 자급률 제고를 위해 경남도는 신규시책으로 조사료 확대 편이 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2개소에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계 사료작물 생산·수확, 사일리지제조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기웅** >> 올해부터는 경남도에서 축산과장은 물론이고 도지사님도 농가를 위해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 기대가 크다.  
경남도에서도 분노 문제로 민원이 많은데 도지사님이 강력한 의지로 퇴비를 부숙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하고 펠릿을 만드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 한우농가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도에서 각별히 챙기니 용기를 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

**손영재** >> 실제로 경남도에서는 한우만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한우를 개량하는데 그동안 외모나 후대성적을 기초했으나 과학 발달로 한우 유전

체를 바탕으로 그 정보를 활용하고 개체별 분석을 통한 우량한우 여부를 조기에 판별하는 기술까지 실용화되고 있다. 경남도는 우량한우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해 신규시책으로 소 유전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우 암소의 모근(털)을 채취하여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 등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해 개체별 유전능력을 도출하고 있다. 이 결과치로 우량개체는 조기 선발하고 불량(저능력)개체는 도축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총 3,500마리에 사업비는 3억1,5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한기웅** >> 사실 경남도는 도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축산정책을 펼치면서 선제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경매시장으로 합천군에서 전국 최초 모바일 경매시스템 플랫폼이 구축,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때는 이 모바일 경매시스템이 매우 큰 도움을 줬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경매시장이 스마트 경매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경남지역에서는 활성화 되면서 경남이 한우가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영재** >> 기존의 한우 오프라인 경매시스템의 시간과 장소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한우 스마트 경매시장 구축사업을 고성군 가축시장(1개소)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가축시장 휴장 시 인터넷 전자경매를 통

## 소 유전체 지원사업 신설 - 우량한우 생산기반 조성 고성군 가축시장에 한우 스마트 경매시장 구축사업



한 비대면 거래로 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합천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한 전국 최초 모바일 경매시스템 플랫폼으로 큰 성과를 봤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경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기웅** >> 가장 걱정인 것은 사실 한우 수급문제다. 수급은 과잉이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농가들은 높은 생산비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조금에 230억원을 지원해 대대적인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펼친다고 했는데 경남도에서도 급식이나 수입육 대체 등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손영재** >> 경남도에서는 송아지 2만5,000마리에 대해 송아지 생산성 향상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14개소에 한우 도우미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특히 한우 고급육 생산유통을 위해 경남한우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 한우 품평회와 고급육 경진대회에도 지원을 펼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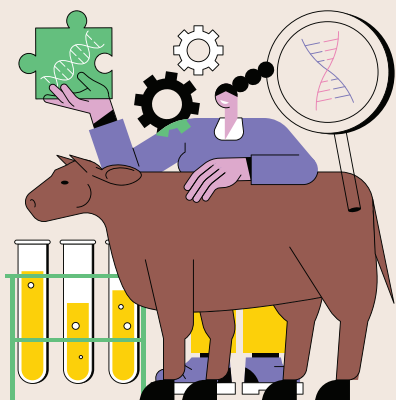
다. 최근 한우산업이 처한 위기를 충분히 인식하고 암소 도태 장려 지원 사업 등을 축산과에서 예산부서에 지속적으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좀 더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기웅** >> 최근의 한우산업 위기에서 내수에서는 한우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수출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한우 소비를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구제역 백신 청정지역으로 결정돼 수출 길이 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만 경남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손영재** >> 같은 생각이다. 한우의 해외진출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소가격이 높을 때는 높아서 수출 추진이 어려웠고, 소가격이 하락하니 하락해서 수출관련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축산

## 신규로 조사료 확대 편이장비 2개소 10억원 투입

## 퇴비 부숙기계 지원 펠릿 제조 시범사업도 추진







과장을 퇴직하기 전에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이 수출 전문단지다. 한우가격이 불안정한 만큼 경남도에서 한우 수출 전문단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기웅** » 정부에서 나서서 수출길을 터주면 좀 더 수월하게 수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는 로스(구이)가 주를 이루지만 이에 비해 외국은 불고기나 양념육을 선호한다. 광고나 프로모션을 통해 홍보를 극대화하면 불고기 등의 비선호 부위가 소진되는 기회도 될 것이다. 급식에 주로 육우나 수입육을 사용하는데 한우자조금이 수입육과 한우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의지를 갖고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사실 경남도는 한우농가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

**손영재** » 한우 수출전문단지 조성을 통해 수

출길을 여는 것은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최근에는 농장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농가들 스스로도 이를 인식하고 동물의 습성이나 섭리를 감안해 깨끗하고 소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환경에서 사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를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도 있고 한우농가도 편하고 근사하게 농장을 가꾸면 좋을 것 같다.

**한기웅** » 한우협회 일을 해 오면서 소통을 통해 경남도에서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았다. 경남도청의 축산공무원들이 농가의 마음을 잘 읽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경남도의 한우농가들도 욕심을 내지 않고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한우 저탄소인증 사업 등이 전국적



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들이 저탄소인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손영재** » 남도에서는 한우 암소개량 및 품질 고급화 사업 등 경남 명품한우 육성을 위한 꾸준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또 이를 실천해준 농가의 노력으로 전국 우량암소 보유 두수 1위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3,000두를 돌파했다. 또한 전국한우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전국 축산물품질평가대상(한우)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 한우가 전국 최고라는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우개량 △농가 생산성 체질 개선 △고급육 생산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한다.

**한기웅** » 한우가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민원을 받거나 잘못된 인식으로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소비자들을 설득해 보다 과학적인 논리로 한우산업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증명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한다. 소비자가 봤을 때도 깨끗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우농가와 경남도가 상부상조해서 아이টে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손영재** » 사료가격 상승, 경기 침체 등 축산업에 위기가 닥쳤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고 조사료 기반이나 가축개량 등 생산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고 고급육 생산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면 좋을 것 같다. 똑같은 한우라고 해도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다른 만큼 농가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경남도에서도 깨끗한 농장 지정수를 늘리며 축산농가와의 상생방법을 찾고 있다. 더욱 많은 노력으로 한우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



한우 암소개량-품질 고급화사업  
꾸준한 시책 추진  
전국 우량암소 보유두수 1위  
지난해 3,000두 돌파



이달의  
한우인

##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조정 고향사랑기부제 확립 기여

이달곤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 의힘 이달곤 의원(경남창원시진해구)은 청탁금지법 개정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립 등에 적극 나서며 한우 산업의 보호를 위해 앞장 서 왔다.

특히 한우를 민족 고유의 동물자원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우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노력한 국회의원이다.

평소 농해수위 위원으로 한우산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이 의원을 한우인들의 감사함과 염원을 담아 '이달의 한우인'으로 선정한다.

### Q 한우산업에 대한 생각은.

한우는 호랑이와 진돗개 등과 함께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동물로서 문화적인 공감과 상징성을 가진 민족 고유의 동물자원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난 2006년 문화관광부가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100대 문화 상징물 중에서 15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한우산업의 비중은 경북이 21.5%로 가장 높고 전남 18.4%, 경남 12.4% 순입니다. 특히 한우 번식 우 사육은 소규모 고령농가의 주요 소득원이 되면서 농촌지역의 일자리 제공과 우량 비육 밀소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는 물론, 인구소

고품질 차별화 전략...한우, 농식품 한류 중심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고향사랑기부금제 '호재' 소비촉진 행사 확대 등 '공생의 길' 모색 노력



멸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 산업입니다.

2022년 기준 한우 산업 종사자 수는 35만 7,000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우산업에 관련된 인구는 약 88만명, 연관된 산업 예산은 약 13조1,500억원 정도이며 생산액은 6조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림업 생산액 중 미국 9조원, 한돈 8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업규모로 우리나라 농림업을 지탱하는 든든한 힘입니다.

### Q 현재 한우산업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우리 밥상에 오르는 고급 음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우 값이 폭락하고 있어 농림업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걱정과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입 곡물가격이 상승해 사료비를 포함한 생산원가가 급등하면서 한우 농가의 피해는 설상가상입니다. 사료가격이 1년 사이 24%나 증가하고 한우 산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한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①생산측면 ②재고량 측면 ③사료

가격 측면 ④소비 측면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단위 1kg당 한우 등심 도매가격은 2021년 6만 6,983원에서 작년에는 5만1,508원으로 23% 이상 하락했습니다. 1kg당 한우 도매가격이 1만7,000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한우 사육 두수는 매년 증가하여 올해 356만 마리로 역대 최대수준을 보였고, 도축 두수도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7.5% 이상 증가한 85만 여 마리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소비는 줄고, 재고는 쌓여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 재고량은 2021년에 비해 무려 83%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한우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2024년까지 도축 두수가 100만 마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우 농가들이 줄줄이 파산했던 2013년 소값 파동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 한우, 민족 고유의 동물자원 ‘보존가치 매우 높아’ 사육두수 증가-물가 상승-소비 하락 ‘악순환’ 반복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위한 적극적 지원-정책 요구



### Q 관세제로화 시대 한우산업 경쟁력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와 품질향상,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등 입체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

쇠고기 수입량이 사상 처음으로 5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간 쇠고기 수입량은 2017년 41만4,090톤, 2018년 45만3,820톤, 2019년 48만776톤, 2020년 48만1,780톤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50만4,832톤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쇠고기 자급률은 2020년 37.2%, 2021년 35.7%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는 수입산 쇠고기 가격이 한우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수입산 쇠고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산 쇠고기 kg당 가격은 9,224원이지만 한우는 2배 수준인 1만9,0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산 쇠고기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적용되던 13%의 관세도 한·미FTA 체결에 따라 2026년에는 완전 철폐되어 농가의 부담이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수입 냉장 쇠고기 비율도 2012년 14.1%에서 2021년 24.4%로 꾸준히 늘고 있어 그나마 안정적이던 한우 냉장육 소비시장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 Q 한우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제언한다면.

한우산업 정책 방향도 환경에 더해 경쟁력을 함께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한우 자급률은 물량보다 시장점유율이 중요하며,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한우는 2000년부터 개체 이력으로 모든 소에 대해 등급판정 DNA 이력을 공유하고 있는데, 한우개량, 품질개량 등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2016년 개정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발효로 공공급식 납품 시 국내산을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

습니다. 여기에 더해 로컬푸드를 20% 우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한우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반가운 소식은 청탁금지법 20만원 상향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159개 한우 브랜드에 상당한 호재가 될 것입니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 차원에서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사업 등을 통해 한우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을 줄이는 캠페인, 고향사랑기부금을 마케팅에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고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지혜를 모아 환경, 동물복지에 공동 대응하고 한우의 이미지를 농식품 한류의 중심이 되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를 확대하고 급식,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료육을 한우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Q 한우농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제 10년간 사육농가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소규모 번식농가가 폐업을 선택하면서 국내 한우산업의 송아지 공급체계 역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우농장은 소규모인 번식농가에서 송아지를 구매해 비육만을 전문으로 하던 대규모의 비육농장으로 양분되는 양상이었지만 번식농가의 폐업으로 인해 비육농장에서는 직접 송아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



면 안되는 어려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번식농가의 수익성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비육농가의 수익성이 좋은 구조를 장기간 이어온 것도 현실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합니다. 최근 들어 번식우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송아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불황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생의 길을 찾는 것이고 한우인의 노력과 마음가짐을 달리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한한우 사료 농가를 찾아서

# 협회사료 “어려운 시기, 농가에 등불”

가격·성적 모두 만족 ‘1++A 등급 맞았을 때 제일 기뻐’

여성한우인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농장을 하는 이가 있다. 장완자 농장을 꾸려가고 있는 장완자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축산을 해본적 없는 전업주부가 시아버지에게 받은 소 2마리를, 7마리로 늘리며 한우를 키워보겠다고 결심했다. 그 길로 축사를 짓고 한우사육을 시작했다. 20여 년만에 한우 50마리 규모의 일관사육 농장을 일군 장완자 대표. 장 대표는 한우를 키우며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한우를 팔아 딸 해외연수를 보내고, 또 한우를 팔아 딸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했던 장 대표는 그야말로 한우가 ‘우골탑’이라며 감사함을 표시했다. 하루하루 감사하다는 장 대표를 만나 한우이야기를 들어보자.



## 아픈 송아지 안고 병원행, ‘한우 키워보겠다’는 자신감

전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남편을 따라 전업 주부로 아이들만 키우던 장 대표는 1997년 IMF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시댁인 완주로 이사를 했다.

“돌도 채 안지난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와서 정착을 하면서 시골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농사일도 돕곤 했는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한우 암송아지 두 마리를 주셨습니다.”

살던 집 옆 외양간에서 암소 두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암소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송아지를 출산했다.

“몇 일 안된 송아지였는데 시어머니가 모르고 생우유를 줬어요. 송아지가 아픈 것 같아서 무작정 그당시 타고 다니면 소형차에 태워서 시

어머니가 송아지를 안고 시내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수의사가 너무 어린 송아지라 처치가 곤란하다고 하더라구요. 주사를 놔주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날 밤 새 송아지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송아지가 일어서더라구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송아지가 일어서는데 ‘한번 키워봐야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구요.”

한우 세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가진 돈 1,000만원으로 작은 축사를 지어 한우를 사육하기 시작했다. 작은 축사지만 다른 축사를 돌아다니며 골조나 시멘트, 축사 구조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했다. 그리고 소 세 마리를 입식해 키우면서 수송아지는 키워 거세우로 팔고 암송아지는 계속 번식을 하며 3년 만에 암소 2마리를 7마리로 불렀다.

“그 쫓되니 ‘나도 할 수 있겠다,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남편 앞으로 돼 있



던 밭에 축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말 없이 가족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나서는 남편이었지만 축사를 지어 한우를 키우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 “한우를 키우는 게 사실 여자 혼자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니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냐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도 많지 않으니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신경쓰지 말라고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나 혼자 잘 할 수 있다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앞으로 돼 있는 땅에 축사를 지으

## 여성분과위원회 초창기부터 왕성한 활동

### 한우 소비촉진행사 지역 축제 적극 참여



려고 하니 대출이 쉽지 않았다. 있는 돈으로 축사를 절반정도 짓고 나중에 허가를 내고 돈을 모으는 대로 축사를 개보수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장 대표는 손수 축사를 지으며 농장을 키워나갔다. 작은 축사를 지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골조를 세우는 파이프 길이부터 시멘트 강도, 바닥 공사까지 장 대표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축사를 신축할 때 대출이 안돼 정말 막막했습니다.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해 지붕이 부실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사료통에 물이 차서 바가지로 물을 퍼내고 말려서 소를 키웠습니다. 남편이랑 손 잡고 열심히 했죠. 고생은 많았지만 그때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농장은 없을 것입니다. 소를 내다 팔기만 했지 사들여 본 적이 없습니다. 7마리로 시작해 50마리가 될 때까지 모두 제손으로 일궈냈습니다. 부듯하죠.”

### 한우에 감사한 마음만, 힘들 때 없어

장 대표는 소를 키우면서 힘들었던 적이 별로 없다고 말한다. “자식키우는게 힘들지, 소 키우는게 뭐가 힘들니까. 딸애가 7살 때쯤 축사를 지어서 한우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딸이 27살이 됐어요. 한우 팔아서 딸애가 가고싶다던 해외연수도 보내고, 한우 팔아서 대학등록금도 내고. 저에게는 정말 우골탑인데 소들한테 감사할 따름이죠.” 늦게 시작한 축산인 만큼 장 대표는 더욱 성실히 공부했다. 매년 개강하는 한우대학을 빠지지 않고 수강하고 지역에서 한우 교육이 있다고 하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다.

“한우를 키우는 요령을 잘 모르니까 한우대학을 다니면서 송아지 설사병 처치 방법 등 간단한 것부터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모르면 다른 농가들에게 물어보면서 익혔죠. 한번은 소가 다리가 다쳤는데 깁스 용품을 사와서 깁스도 직접 할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축산시험연구소에서 임신감정하는 것도 배우고 수정도 배우고, 한우는 정말 배울 것 투성이입니다.” 배우는 것이 즐거워 힘든 줄 몰랐다는 장 대표는 도전해서 안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남들은 과감히 투자해서 성공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소를 살 줄도 모르고 그저 제가 키우는 한우를 번식시켜서 늘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성실히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농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최근 사료가격이 오르고 한우가격이 떨어지면서 경영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우를 키우며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으니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힘든 때에 한우협회 OEM사료인 ‘대한한우’사료를 써서 경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우협회에 도움을 받은 것이 많아서 협회가 하는 일이라면 두 손 들고 열심히 했습니다.” 대한한우 사료를 쓰면서 최근에 출하한 소들의 성적도 좋아 장 대표는 크게 만족하고 있다. 민간사료를 쓸 때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등급도 잘 나오니 금상첨화다.

“거세우 세 마리가 1+ A 등급을 맞았을 때 정말로 기쁘더라고요. 대한한우 사료를 먹인지는 얼마 안됐지만 가격이나 성적 모두 만족합니다. 한우협회가 하는 일인데 농가들이 믿고 따



라야죠.”

지역에서 하는 한우협회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완주군지부 소속인 장 대표는 여성분과위원회도 초창기부터 활동하고 있다.

“한우협회에서 하는 한우 소비촉진행사나 지역 축제에서 한우로 음식을 만드는 행사나 시식행사 등에 모두 참여합니다. 여성한우인들은 아무래도 청소도 세밀하게 하고 바닥도 깨끗하게 하는 편이죠. 여성한우인들이 힘든 점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협회 일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고 말하는 장 대표는 좋은 정액으로 한우를 개량해 더욱 건실한 농장을 꾸려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84개 업체 328개 부스 신청...사료업체 참여 높아 사무국 “부스 조기 마감 예상” 빠른 신청 당부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 전시장에서 ‘대한민국 축산의 가치와 연속성’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서초구 축산회관에서 축산 전문지 초청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진 박람회 추진위원장(대한양계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각 공동주최 단체(양계, 한돈, 한우, 낙농육우, 오리, 시설기계) 관계자, 축산 관련 전문지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박람회 주요 추진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으로 진행됐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현재 신청이 확정된 부스는 84개 업체 328개 부스 규모로, 700개 부스를 목표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참가한 품목 집계는 △축산기자재 54.1%(171부스) △사료 34.8%(110부스) △동물약품 4.4%(14부스) △기타 2.2%(7부스)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는 현재 5개 국가에서 7개 업체가 참가를 확정지은 상태로, 네덜란드와 스페인 대사관에 이어 캐나다 상공회의소와 벨기에 대사관도 적극적으로 참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계약을 완료한 해외의 박람회 공식 에이전시가 적극적 유치 활

동을 진행하고 있어 5월 이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형 사료업체들(부경양돈농협, 선진, 고려산업, 팜스코, 제일사료, 카길애그리퓨리나, 우성사료 등)이 대거 참가를 확정지은 상태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전시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전시 형태로 진행돼 박람회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의 축산농가와 관계자들도 참여 업체의 전시물 정보와 시연 영상 등을 ‘디지털 쇼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오세진 추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6

일부터 8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KISTOCK 2023이 우리 축산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를 국민 모두에게 알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 축산업의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장을 만들겠다”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할 수 있는 축산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우리 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올해는 대한양계협회가 주관한다.

## MINI INTERVIEW

###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참여 열기 뜨겁다”

#### 국내 기술력 외국에 알리는 ‘기회의장’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이 점점 해외로 뻗으면서 국내에 관심을 갖는 해외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오는 9월 6~8일(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되는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국내유일의 단일 축산박람회로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박람회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코로나-19가 3년간 하늘길을 막아버리면서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들이 출몰이 취소되는 등 정보와 기술의 교류가 한 동안 단절되어 왔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박람회 개최를 강행하기도 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행사는 축소 내지 부실하게 개최될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 유명 박람회로는 미국 애틀랜타

양계박람회를 비롯 태국 VV ASIA, 독일 하노버 박람회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애틀랜타 박람회는 하루 종일 참관해도 전 부스를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매우 큰 박람회로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독일 하노버 박람회 역시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 박람회로 손색이 없다. 이곳에는 우리나라도 한국관을 설치하여 홍보할 정도로 국내 기술들을 외국에 알리는 장소가 되고 있다.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외국 업체들이 대거 국내 전시회에 참여하는 국제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내 기술력을 외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양계인 및 축산인, 관련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기를 바란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회장





## 아시아 최대규모-세계 3대 축산박람회 전시장 면적 6만㎡...1천여개 이상업체 참가

지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VIV ASIA 축산박람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전세계 3대 축산박람회 중 하나다.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주요 전시 품목은 동물 사료, 첨가제, 의약품, 기자재 등 모든 산업동물 관련 산업을 포괄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는 4년 만에 IMPACT CHALLENGER 전시장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태국 VIV ASIA 전시장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참가업체, 부스 배치와 구성 등을 확인하며 둘러보았다.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위해 빠른 걸음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도 6만㎡에 달하는 실내 규모로 인해 짧은 시간은 소모되었다. 이 거대한 공간을 세계 각지에서 온 1,000여개 이상의 참가업체들이 채우고 있다는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진 : VIV ASIA 2023



## 태국에서 바라본 지구촌 축산업의 현황



이기찬  
기획총무국 주임

올해 9월 6일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대구 EXCO에서 3일간 개최된다. 전 축종이 어우러지는 종합축산박람회로 1999년 출발한 이래 열두 번째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 박람회는 우리 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양계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질적 향상과 해외업체 유치를 목적으로 참관단을 구성해 3월 7일부터 11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VIV ASIA 축산박람회를 참관하였다. 참관단은 공동주최 단체별 단체장 1명, 실무자 1명 총 2명으로 구성하여 현지에서 국내 축산박람회를 홍보하고 박람회 트렌드를 파악하는 등 짧지만 알찬 일정을 수행했다. 우리 협회에서는 한양수 부회장과 이기찬 주임(필자)에게 해외 출장 업무가 할당됐다. 코로나19 방역 해제 후 좋은 기회에 다녀온 VIV ASIA 탐방기를 통해 보고 느낀 값진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한다.

## 양돈·육계 큰 비중...관련제품기술 전시 한국국제축산박람회 현지 홍보 박차

다만 소와 관련된 제품 및 업체를 찾아보기 힘든 점은 다소 아쉽게 느껴졌다. 이것은 박람회가 열리는 국가인 태국의 식문화, 축산업 환경 등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봤다.

태국 국민들은 육류 중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선호하며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에서도 양돈산업과 육계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문화·종교·기후와 관련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쇠고기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래식품, 생산비 절감 관련 컨퍼런스 진행  
축산업=‘범지구적 산업’ 다시한번 체감

VIV ASIA에서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참관단에게 주어진 임무 중 하나는 해외업체 유치였다. 실무자들과 함께 준비된 한국국제축산박람회 팸플릿을 챙기고 구역을 나누어 각 부스를 방문하며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타국에서 해외업체를 상대로 알려줄 수 있는 국제축산박람회가 한국에도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이를 직접 소개하다 보니 부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

#### 세계 축산 공통 아젠다 ‘미래식품’ 컨퍼런스·세미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 눈길

태국 국제축산박람회에선 미래식품(육류모방식품, 대체식품), 생산비 절감 등을 주제로 컨퍼런스 및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다. 축산업이 특정 지역,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범지구적 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계에서도 동일한 쟁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축산인들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VIV ASIA는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오는 9월에 열리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올해 한국국제축산박람회의 주제는 ‘대한민국 축산의 가치와 연속성’이다. 단순한 국제박람회를 뛰어넘어서 축산업 전·후방 관계자 및 축산인 모두에게 축산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감을 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풍성하고 유익한 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던 참관단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2023년 한국국제축산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한다.



# 전국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 농가가 원하는 적기 출하
- 경매 상장 수수료 無
- 운송비 절감
- 하자육 발생시 농가 손실 방지제도 운영



• 한 차(8두 기준) 출하, 100만원 이상 이득 ⇒ **농가수익개선**

전국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거래유통망은 부산물 제값받기와 적기출하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한우협회 전용 도축유통망입니다. 경매 상장수수료가 없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영안정에 유익합니다.

#### ◆ 출하 신청방법 ☎ 02-525-1053

- 담당 : 유통사업국 박호경 대리(내선 207)
- 시기 : 출하 계획 14일~30일전 협회로 신청
- 접수 : 중앙회 담당직원 연락 또는 시군지부 접수
- 팩스 : 02-525-1054



#### ◆ 정산기준

구분	거세우	암소	비고
출하규격 (지육중량)	27개월령 이상 36개월령 이하 380kg이상 600kg이하	26개월령 이상 60개월령 이하 300kg이상 550kg 이하	※ 등심단면적 기준 (거세) 86cm <sup>2</sup> 이상 110cm <sup>2</sup> 이하 (암소) 76cm <sup>2</sup> 이상 100cm <sup>2</sup> 이하
가격적용 기준	농협 음성공판장 화,수,목,금 평균가	음성공판장 화,수,목 평균가	
부산물	두·내장·우족은 농협 음성공판장 가격 적용		우피는 당해 도축장 가격에 따름
하자육 처리	근출혈 보상보험 두당 8,500원		하자육 금액이 kg당 1,000원 이상으로 발생시 일부 자부담 발생
출하장려금	(거세, 두당 7만원) 도체중 420kg~560kg이하, 월령 30~34개월이하, 등심단면적 86cm <sup>2</sup> 이상 (암소, 두당 12만원) 도체중 350kg~550kg이하, 월령 28~60개월이하, 등심단면적 76cm <sup>2</sup> 이상		



기상 이변-파종 지연 등 이유

## 올해 국제곡물시장 ‘불확실성’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곡물 수급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애그플레이션까지 언급됐던 것과 달리 국제곡물수급상황이 다소간 진정되는 모양새다.

달러환율 고공행진과 함께 해상운임 상승, 인건비 상승 등에 유럽의 곡창지대로 불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지난해 옥수수과 대두 등 국제곡물은 5개월 사이 25% 이상 오르는 등 급상승했다가 다시 지난해 7월 이후 가격이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찾는 듯 했다.

그러나 올들어 국제곡물가격이 다시금 조금씩 오르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세계의 곡물전문가들은 기상여건과 파종여건 등을 이유로 올해의 국제곡물시장을 ‘불확실성’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불안한 출발로 우려감을 더해가고 있는 국제곡물시장을 다각도로 전망해 봤다.

[표 1] 옥수수, 대두박 선물가격

(단위: US\$/MT)

품목	2.17(A)	2.10(B)	전월평균 (C)	전년동월 (D)	가격등락		
					A-B	A-C	A-D
옥수수	267	264	258	235	3	9	32
대두박	540	546	501	452	-6	39	88

품목	금 주 3.24(A)	전 주 3.17(A)	전월평균 (C)	전년동월 (D)	가격등락		
					A-B	A-C	A-D
옥수수	249	249	263	290	0	-14	-41
대두박	487	527	545	527	-40	-58	-40

### 연초 선물가격 오름세로 시작

연초 옥수수 선물가격은 다소간 오름세로 시작됐다. 연초 오름세는 2월까지 이어지며 2월중순경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67달러로 전달보다는 5%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보다는 소폭 오른 모양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12% 이상 오른 가격이다.

대두박의 가격 상승세는 더욱 가파른 상황으로 지난 2월 17일 대두박은 톤당 540달러로 전달보다는 8% 가량 올랐다. 이는 전달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0달러 가까이 오른 것으로 대두박 가격은 1년 사이 약 2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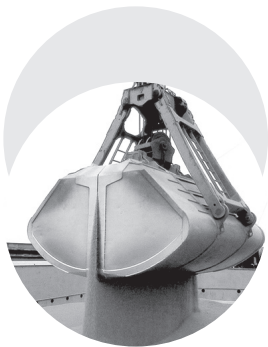
3월 들면서 다시 곡물 선물가격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49달러로 전달보다는 14달러가량 떨어졌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1달러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옥수수 선물 가격 하락은 흑해 곡물 수출협정이 연장되면서 옥수수 수출지표가 안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문제는 대두박이다. 대두박은 톤당 487달러로 전주 57달러에 비해 10% 가량 떨어지며 한 주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현지에 따르면 대두재고가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뭄으로 아르헨티나 흉작이 예상되고 있어 대두 가격은 상승요인이 계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로사리오 곡물 거래소는 올해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입량이 전년 대비 139% 증가한 790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두 생산량이 평년 대비 급감한 가운데 아르헨티나 크러시 산업의 대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두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옥수수·대두 등  
국제곡물가격 동향

지난해 5개월새  
25%이상 급상승



다만 브라질에서 대두 신곡이 유입되면서 대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브라질 곡물수출자협회는 3월 브라질 대두 수출량 전망치를 1539만 톤으로 제시했다. 이는 2월 전망치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된 수치로 전년동월 대비 26%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대표적 사료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의 선물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옥수수는 브라질 옥수수 파종 지연 가능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브라질 공급공사는 올해 브라질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를 1.4%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이는 대두 수확 지연으로 옥수수가 파종 적기 이후에 심어지면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감소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다만 미국 옥수수 수출 부진이 전체적인 세계 옥수수 가격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주간 미국 옥수수 순수출판매량은 112만 톤으로 전주보다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옥수수의 재고량이 전체적인 옥수수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두 선물 가격은 아르헨티나 기상 여건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곡물 거래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향후 서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될 경우 대두 가격은 더욱 오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브라질 대두 수확 지연도 대두 가격 상승세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컨설팅회사인 애그루랄(AgRural)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브라질 대두 수확 진행률은 17%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24% 하회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하반기로 가면 대두 가격은 다소간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브라질 대두 생산량 전망치는 1억5,300만톤으로 역사상 최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두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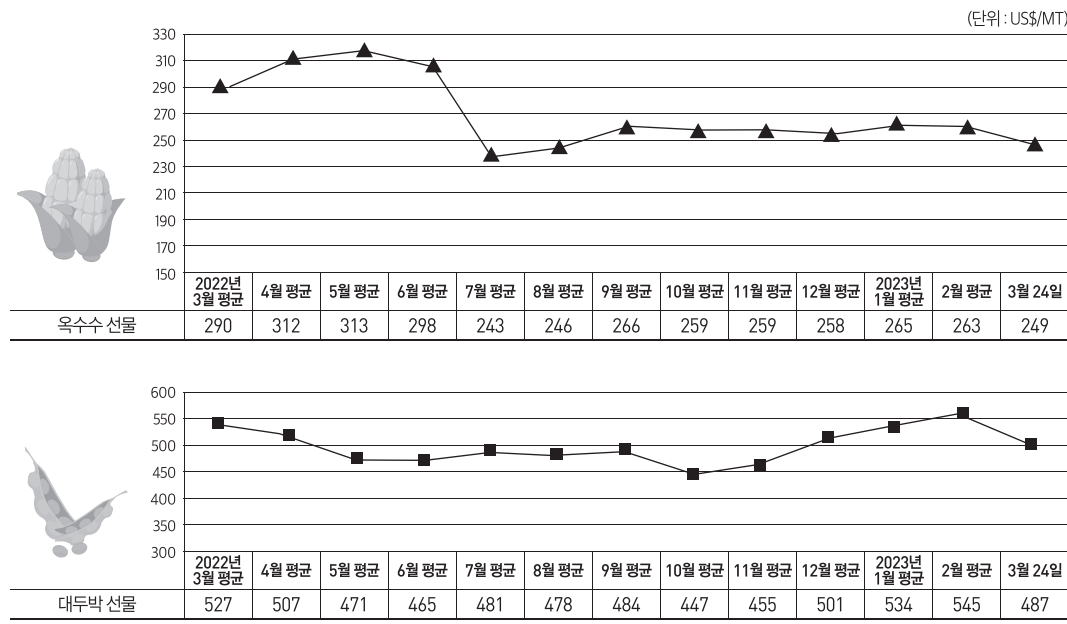
지난해 걸프만(GULF) 기준 톤당 83달러까지 치솟았던 해상운임은 지난 2월 17일 기준 46달러로 큰폭으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40달러까지 치솟았던 북태평양 연안(PNW)도 지난달 17일 22달러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3월 24일 걸프만(GULF) 기준 53달러로 소폭 올랐지만 전주보다는 3달러 가량 떨어졌고, 북태평양 연안(PNW)도 지난 3월 24일 기준 26달러로 아직은 안정권에 있다는 분석이다.

해상운임 떨어졌지만 환율 상승 요인 있어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배합사료업계는 지난해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은 만큼 올해 국제곡물가격 추이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지난해 원료가격 상승을 부추겼던 해상운임 문제는 다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운지수(BDI)와 파나마스 운임(BPI)은 중국 철강 수요 부진과 철광석 항만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파나마스 운임은 북반구에 겨울이 끝나가면서 석탄

[표2] 옥수수, 대두박 선물가격





과 천연가스 물동량이 감소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미 지역에 기상이 호전돼 수확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에 따른 대두 출하량이 본 궤도에 올라 해상운임 낙폭을 줄일 것이란 전망이 있다.

문제는 달러환율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1,430원까지 치솟았던 달러환율은 지난 연말 1,200원대까지 떨어지며 다소간 안정세를 찾는 듯했지만 올들어 다시 1,300원대로 올라서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예상을 상회하는 물가지표가 나오면서 미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로 달러환율은 다소간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 쏟아지고 있다. 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 6.2%를 상회한 상황이고 미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보다 0.7%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 0.4%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내 부동산 경기 하락이 실물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의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환율을 잡아줄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옥수수과 대두의 가격 상승세를 견인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는 식용 소맥가격은 흑해 곡물수출 협정 붕괴가 우려되고 있어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소맥가격의 흐름을 좌우했던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둘러싸고 러시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북 지역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는 등 식용 소맥의 대내외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료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큰 폭으로 올랐던 국제곡물 가격이 지난 연말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료원료 가격도 떨어진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 배합사료업체들은 가격인하를 단행한 바 있지만 실상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배합사료업체들이 많아진 상황”이라며 “올해 국제곡물가격은 물론 환율도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사료원료가격 추이를 담보할 수 없어 배합사료업체들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우크라 전쟁 영향...7월이후 안정세  
올들어 다시금 조금씩 오르며 위기감



### 국제곡물시장, 불확실성 커져

올해의 국제곡물시장을 전망하는 가장 대표되는 단어는 ‘불확실성’이다.

마티 루이카 더 프로엑스포터 네트워크 대표는 세계 곡물시장과 관련한 전망을 통해 “세계곡물시장을 둘러싼 환경에 불확실한 요인이 너무 많다”며 “라니냐 등의 기상이변은 물론 파종 지연 등 미국과 남미의 작황 환경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의 곡물시장 추이는 단편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신곡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브라질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파종시기가 늦어지면서 전체적인 생산량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세계 정세의 불안함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흑해 곡물 수출 협정 문제로 UN 주재 러시아 대사가 최근 서방 제재로 흑해 곡물 협정 연장 이후 곡물 수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옥수수와 대두의 주요생산국인 미국은 파종시기가 가장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웨더마켓으로 불리는 6-7월의 날씨가 9월 미국의 파

종기후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가 지난 이후 6월이 돼야 전체적인 곡물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곡물시장을 전망하는 글로벌 컨설턴트 회사의 한 관계자는 “그 어느 때 보다는 변동요인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곡물시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확답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지난해 애그플레이션을 거론할 정도의 위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평균가격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한우동향분석 2023.3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 【한우사육】2023년 2월 한우 사육마릿수 및 가임암소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한우 사육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3.47% 증가, 전월 대비 0.20% 감소
- 가임암소 전년 동월 대비 2.99% 증가, 전월 대비 0.48% 감소
- 연령별 사육두수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 6.30% 감소, 1세~2세 4.78%, 2세 이상 8.68% 증가



## 【등급판정】2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1등급 이상 출현율 74.5% 전년 동월 대비 및 전월 대비 감소
- 1\*\*등급 : 25.0%, 1\*등급 : 24.8%, 1등급 : 24.8%



## 【도매 및 산지가격】2월 한우 도체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큰 소 및 (6~7개월령) 송아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하락, 큰 소 및 6~7개월령 암소는 전월 대비 상승

- 한우 큰 소(600kg) 암소 가격 전년 동월 대비 23.7% 하락, 전월 대비 0.3% 상승(수소는 26.6% 하락, 7.2% 각각 상승)
- 한우 암송아지(6~7개월령) 가격 전년 동월 대비 28.7% 하락, 전월 대비 4.7% 상승(수송아지는 23.5%, 1.2% 각각 하락)



## 【배합사료·정액판매】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정액 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 월 배합사료 누적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5.28% 증가
- 2월 정액 누적 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11.28% 감소



## 【쇠고기 수입】2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 전월 대비 1.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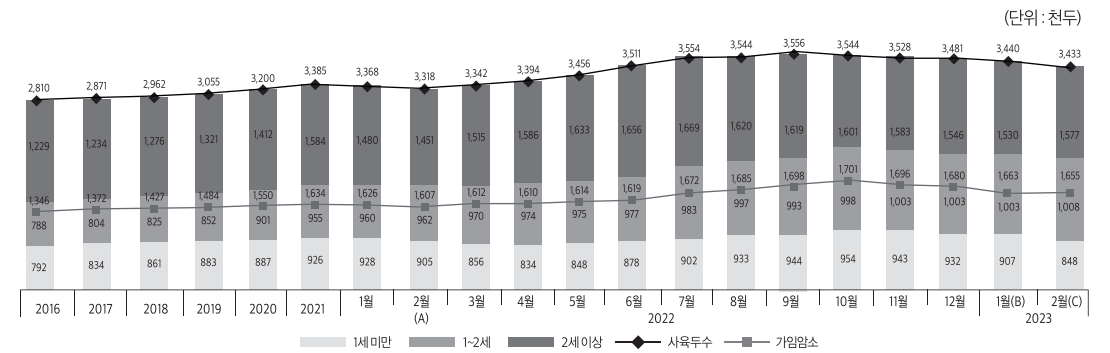
- 전월 대비 냉동육 수입 7.6% 감소, 냉장육 23.9% 증가



## 1. 한우 사육 동향

◎ 2023년 2월 한우 사육마릿수 및 가임암소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한우 수급 안정화 및 가격 하락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암소 자율 감축 필요

- 한우 사육마릿수는 343만 3천 마리로 전년 동월(331만 8천 마리) 대비 3.47%(11만 5천 마리) 증가, 전월(340만 마리) 대비 0.20%(7천 마리) 감소
- 가임암소는 166만 5천 마리로 전년 동월(160만 7천 마리) 대비 2.99%(4만 8천 마리) 증가, 전월(165만 5천 마리) 대비 0.48%(8천 마리) 감소
- 연령별 사육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1세 미만은 6.30%(5만 7천 마리) 감소, 1~2세는 4.78%(4만 6천 마리), 2세 이상은 8.68%(12만 6천 마리) 증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소이력관리현황'

【그림 1】한우 사육 두수 현황

○ 사육 농장수는 86,861농장으로 전년 동월(89,378농장) 대비 2.82%(2,517농장) 감소, 전월(87,160농장) 대비 0.34%(299농장) 감소

○ 농장 당 사육마릿수는 39.5마리로 전년 동월(37.1마리) 대비 6.47%(2.4마리) 증가, 전월(39.5마리) 대비 변동 없음

【표 1】한우 사육 현황

(단위: 호, 천마리, %, 두)

구분		농장수	사육두수	가임 암소두수	송아지 두수	연령별 두수			농장당 사육두수
						1세 미만	1~2세	2세 이상	
2021		89,423	3,312	1,578	88.2	873	931	1,508	36.9
2022	1월	89,559	3,368	1,626	61	928	960	1,480	37.6
	2월(A)	89,378	3,318	1,607	58.2	905	962	1,451	37.1
	3월	89,378	3,342	1,612	44.1	856	970	1,515	37.4
	4월	89,343	3,394	1,610	87.7	834	974	1,586	38.0
	5월	89,242	3,456	1,614	89.5	848	975	1,623	38.7
	6월	89,153	3,511	1,639	78.6	878	977	1,656	39.4
	7월	89,016	3,554	1,672	66.5	902	983	1,669	39.9
	8월	88,633	3,544	1,685	46.8	933	991	1,620	40.0
	9월	88,471	3,556	1,698	41.2	944	993	1,619	40.2
	10월	88,137	3,544	1,701	34.1	945	998	1,601	40.2
	11월	87,784	3,528	1,696	32.4	943	1,003	1,583	40.2
	12월	87,470	3,481	1,680	31.7	932	1,003	1,546	39.8
2023	1월(B)	87,160	3,440	1,663	60.1	907	1,003	1,530	39.5
	2월(C)	86,861	3,433	1,655	58.8	848	1,008	1,577	39.5
증감률	전년동월(C/A)	△2.82	3.47	2.99	△9.12	△6.30	4.78	8.68	6.47
	전월(C/B)	△0.34	△0.20	△0.48	△2.16	△6.50	0.50	3.07	0.00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우  
등급판정  
동향

◎ 2023년 2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2월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는 64,516마리로 전년 동월(38,287마리) 대비 68.5%(26,229마리)

증가, 전월(88,073마리) 대비 26.7%(23,557마리) 감소

- 성별비율은 암소 49.3%, 수소 0.5%, 거세우 50.2%

\* 전월대비 : 암소 1.7%p↑, 수소 0.4%p↓, 거세우 1.2%p↓, 거세울 0.7%p↑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 두수

(단위:두,%)

구분	계	암	수	거세	수소거세울
전년누계 (‘22.1.~2월)	139,410	59,877	1,362	78,171	98.3
	100.0	43.0	1.0	56.1	
금년누계 (‘23.1.~2월)	152,589	73,760	1,138	77,691	98.6
	100.0	48.3	0.7	50.9	
전년동월 (‘22.2월)	38,287	16,488	255	21,544	98.8
	100.0	43.1	0.7	56.3	
전월 (‘23.1월)	88,073	41,961	804	45,308	98.3
	100.0	47.6	0.9	51.4	
당월 (‘23.2월)	64,516	31,799	334	32,383	99.0
	100.0	49.3	0.5	50.2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2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 74.5%, 전년 동월 대비 1.6%p 감소, 전월 대비 1.4%p 감소

○ 2월 1등급 이상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25.0%, 1\*등급 24.8%, 1등급 24.8%

-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5.9%) 대비 1.4%p↓, 1\*\*등급 1.7p↓, 1\*등급 0.4%p↓, 1등급 0.8%p↑

- 전년 동월(76.1%)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6%p↓, 1\*\*등급은 1.0%p↓, 1\*등급 1.0%p↓, 1등급은 0.6%p↑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 누계(76.6%)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 1.2%p↓, 1\*\*등급은 0.3%p↓, 1\*등급 1.0%p↓, 1등급은 동일

[그림 2]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좌) 및 육량 등급 출현율(우)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두,%,%p)

구분	판정두수	육질등급						육량등급			등외
		1**	1*	1	소계	2	3	A	B	C	
2016	737,476	9.6	30.4	29.4	69.3	22.8	7.6	22.9	47.2	29.6	0.2
2017	742,536	10.1	33.3	28.7	72.1	20.3	7.4	21.2	47.1	31.4	0.3
2018	736,354	12.2	30.4	30.4	72.9	19.4	7.3	20.5	47.6	31.7	0.3
2019	765,297	15.7	28.3	29.9	74.0	18.6	7.1	20.7	48.2	30.8	0.3
2020	762,749	22.5	25.5	26.1	74.1	18.2	7.4	25.0	50.5	24.2	0.3
2021	794,238	23.8	25.8	25.3	74.9	17.5	7.3	24.4	52.4	23.0	0.3
2022	869,147	25.6	25.3	24.3	75.2	17.0	7.6	27.0	52.0	20.7	0.2
2022	2월(A)	38,287	26.0	25.8	24.2	76.1	16.9	6.7	24.6	52.3	0.4
	1~2월(B)	139,410	26.3	26.0	24.3	76.6	16.5	6.7	23.4	52.3	0.2
2023	‘22.1월(C)	88,073	26.7	25.2	24.0	75.9	16.3	7.5	26.5	51.2	0.3
	2월(D)	64,516	25.0	24.8	24.8	74.5	17.3	7.8	26.1	52.0	0.4
	1~2월(E)	152,589	26.0	25.0	24.3	75.4	16.7	7.6	26.3	51.5	0.3
전월대비(D-C)		△23,557	△1.7	△0.4	0.8	△1.4	1.0	0.3	△0.4	0.8	△0.4
전년동월대비(D-A)		26,229	△1.0	△1.0	0.6	△1.6	0.4	1.1	△0.3	△1.1	0.0
전년누계대비(E-B)		13,179	△0.3	△1.0	0.0	△1.2	0.2	0.9	2.9	△0.8	△2.4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 2023년 2월 한우 평균 도매가격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상승

○ 2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16,005원/kg)은 전년 동월(18,437원/kg) 대비 13.2%(2,432원/kg) 하락, 전월(15,193원/kg) 대비 5.3%(812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균 도매가격(16,292원/kg)은 전년 동월(19,401원/kg) 대비 16.0%(3,109원/kg) 하락, 전월(15,904원/kg) 대비 2.4%(388원/kg) 상승

[그림 3]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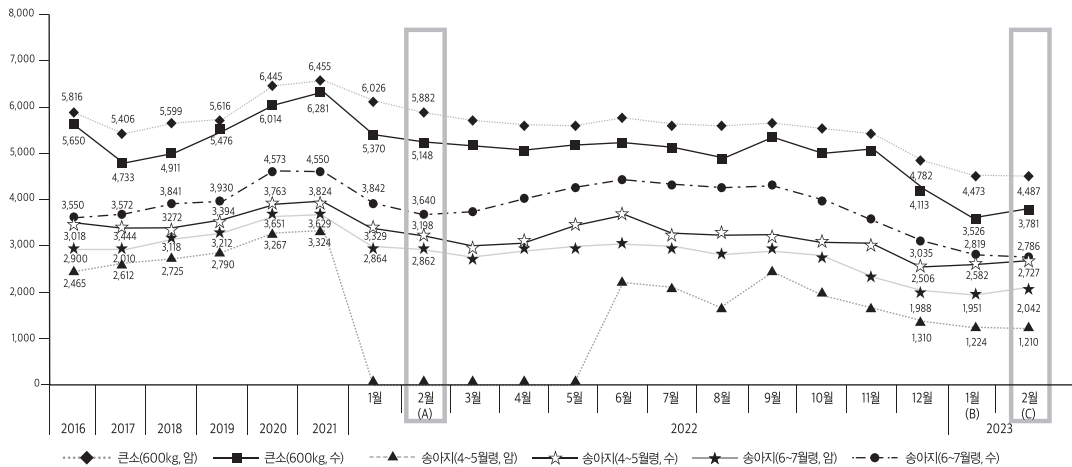
◎ 2월 한우 산지가격 큰 소 및 (6~7개월령) 송아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하락, 전월 대비 큰 소 및 6~7개월령 암소 상승

- 2월 큰 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4,487천원으로 전년 동월(5,882천원) 대비 23.7%(1,395천원) 하락, 전월(4,473천원) 대비 0.3%(14천원) 상승  
- 수소의 경우 3,781천원으로 전년 동월(5,148천원) 대비 26.6%(1,367천원) 하락, 전월(3,526천원) 대비 7.2%(255천원) 상승
- 2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2,042천원으로 전년 동월(2,862천원) 대비 28.7%(820천원) 하락, 전월(1,951천원) 대비 4.7%(91천원) 상승  
- 수송아지의 경우 2,786천원으로 전년 동월(3,640천원) 대비 23.5%(854천원) 하락, 전월(2,819천원) 대비 1.2%(33천원) 하락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단위: 원/kg, %)

구분		1**	1*	1	2	3	등외	평균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5,715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6,194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5,281	17,965
2020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5,468	19,891
2021		25,287	22,801	20,958	16,629	12,872	6,152	21,155
2022	2월(A)	23,705	20,508	18,437	14,691	11,372	6,026	19,401
2023	1월(B)	20,518	17,186	15,193	10,688	7,052	4,122	15,904
	2월(C)	20,901	17,840	16,005	11,297	7,711	4,055	16,292
증감율	전년동월(C/A)	△11.8	△13.0	△13.2	△23.1	△32.2	△32.7	△16.0
	전월(C/B)	1.9	3.8	5.3	5.7	9.3	△1.6	2.4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주 : 2020년 송아지(4~5월령)의 경우 3월과 5월은 코로나로 인한 가축시장 임시폐쇄로 가격자료 없음

[그림 4] 한우 산지가격 추이(전국)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큰소(600kg)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암	수	암	수	암	수
2016		5,816	5,650	2,465	3,485	2,900	3,550
2017		5,406	4,733	2,612	3,444	2,919	3,572
2018		5,599	4,911	2,725	3,272	3,118	3,841
2019		5,646	5,476	2,790	3,394	3,212	3,930
2020		6,114	5,446	3,060	3,711	3,435	4,295
2021		6,455	6,281	3,324	3,824	3,629	4,550
2022	1월	6,026	5,370	-	3,329	2,864	3,842
	2월(A)	5,882	5,148	-	3,198	2,862	3,640
	3월	5,701	5,154	-	2,893	2,735	3,683
	4월	5,600	4,967	-	3,048	2,868	4,001
	5월	5,521	5,163	-	3,379	2,907	4,208
	6월	5,753	5,193	2,278	3,547	2,994	4,407
	7월	5,551	5,053	2,050	3,158	2,898	4,266
	8월	5,511	4,801	1,630	3,217	2,776	4,210
	9월	5,621	5,317	2,400	3,147	2,859	4,251
	10월	5,538	4,944	2,001	3,045	2,686	3,904
	11월	5,391	5,016	1,553	3,018	2,329	3,429
	12월	4,782	4,113	1,310	2,506	1,988	3,035
2023	1월(B)	4,473	3,526	1,224	2,582	1,951	2,819
	2월(C)	4,487	3,781	1,210	2,727	2,042	2,786
증감율	전년동월(C/A)	△23.7	△26.6	-	△14.7	△28.7	△23.5
	전월(C/B)	0.3	7.2	△1.1	5.6	4.7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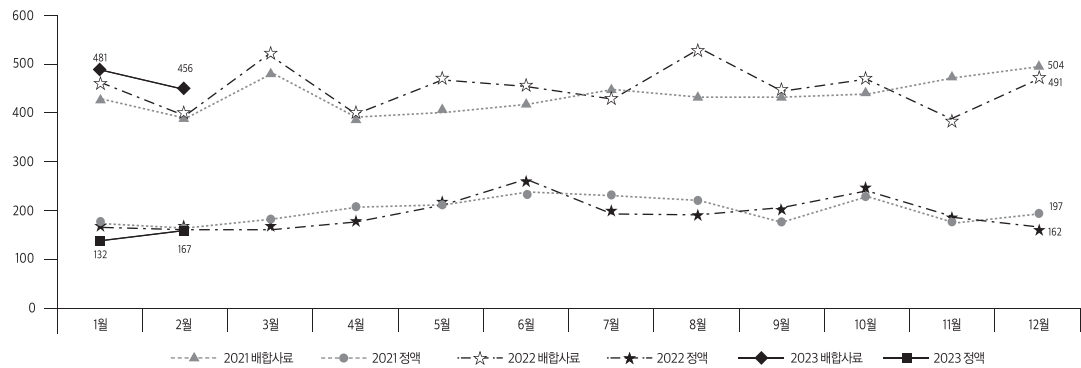
자료 : 농협 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 4.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 2023년 2월 배합사료 생산량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한우 정액판매량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

- 2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56천 톤(당해년도 누적 937천 톤)으로 전년 동기간 누적 생산량(890천 톤) 대비 5.28% (47천 톤) 증가
- 2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167천 str(당해년도 누적 299천 str)로 동기간 누적 판매량(337천 str) 대비 11.28% (38천 str) 감소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그림 5]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천톤, 천st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배합 사료	2021	442	406	490	406	423	435	451	444	451	453	482	504	5,387
	2022	473	417	514	418	485	453	436	529	458	478	409	491	5,561
	2023	481	456											937
정액	2021	172	162	179	209	209	233	226	214	183	220	170	197	2,374
	2022	171	171	171	183	206	233	199	192	202	220	176	162	2,281
	2023	132	167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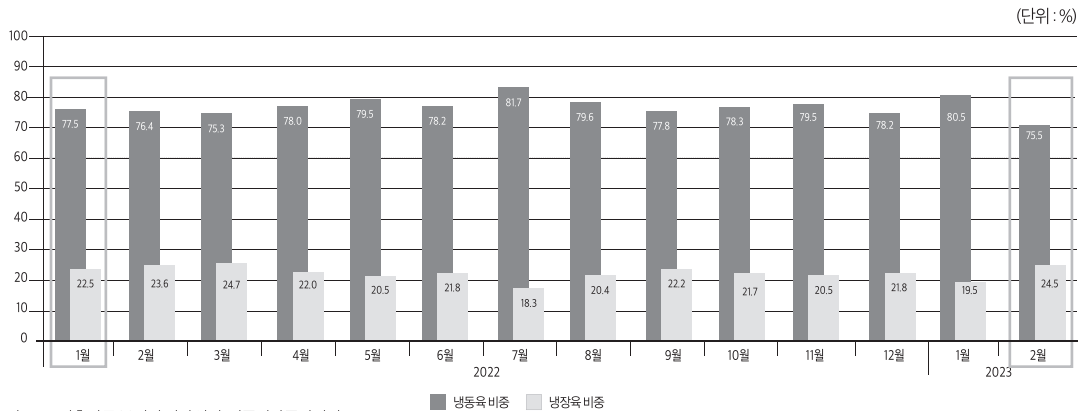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 5. 쇠고기 수입현황

○ 2023년 2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전월 대비 감소

○ 2월 쇠고기 수입량은 3만 5,118톤으로 전년 동월 3만 4,349톤 대비 2.2% (769톤) 증가, 전월 3만 5,649톤 대비 1.5%(531톤) 감소

- 전월 대비 냉동 쇠고기 7.6%(2,195톤) 감소, 냉장 쇠고기 23.9%(1,663톤) 증가



자료 : 수입축산물 부위별 검사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림 6] 수입쇠고기 냉동육과 냉장육 비중 변화 추이

○ 2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갈비 12.7%(1,486톤) 증가, 등심 12.2%(391톤), 기타 10.9%(1,039톤), 앞다리 8.7%(490톤), 양지 1.7%(97톤) 감소

○ 2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월 대비 미국산이 25.0%(4,248톤) 증가, 호주산 27.3%(3,870톤) 감소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단위: 톤, %)

구분		물량			부위별					국별		
		합계	냉동	냉장	갈비	양지	앞다리	등심	기타	미국	호주	기타
2015		297,265	245,952	51,313	115,460	38,582	31,404	42,826	68,993	112,431	164,063	20,771
2016		361,531	301,219	60,312	133,197	35,049	45,295	50,001	97,989	153,181	177,530	30,820
2017		344,271	265,665	78,606	142,659	37,517	42,648	39,031	82,416	168,502	149,935	25,834
2018		415,685	326,531	89,154	151,933	53,737	54,270	55,595	100,150	219,769	167,454	28,462
2019		426,626	339,240	87,386	164,792	57,444	53,881	49,849	100,660	237,624	163,158	25,844
2020		419,469	321,646	97,823	161,018	54,616	54,937	44,522	104,376	228,686	158,293	32,490
2021		452,792	333,412	119,381	153,481	65,331	60,625	46,948	126,407	254,874	160,117	37,801
2022	1월	39,218	30,375	8,843	12,121	7,403	5,285	3,964	10,445	15,987	17,969	5,262
	2월	34,349	26,232	8,117	13,150	6,485	4,737	2,640	7,337	22,977	8,291	3,081
	3월	39,926	30,050	9,876	14,508	8,339	4,291	3,412	9,376	23,943	11,821	4,162
	4월	36,355	28,367	7,988	14,449	7,439	4,073	2,940	7,454	21,141	9,854	5,360
	5월	44,669	35,532	9,137	16,877	9,480	4,641	3,490	10,181	24,545	13,732	6,392
	6월	37,607	29,390	8,217	15,550	6,572	3,715	3,192	8,578	20,800	11,886	4,921
	7월	43,249	35,349	7,900	16,485	7,127	4,039	3,724	11,874	23,725	14,837	4,687
	8월	42,067	33,486	8,581	14,041	6,418	4,681	4,186	12,741	21,558	16,452	4,057
	9월	44,062	34,293	9,769	15,137	5,904	5,168	4,172	13,681	23,894	16,036	4,132
	10월	36,159	28,305	7,854	13,245	5,218	4,209	2,975	10,512	19,297	14,391	2,471
	11월	36,726	29,203	7,523	14,530	6,356	4,323	3,339	8,178	22,093	11,302	3,331
	12월	42,367	33,141	9,226	15,533	7,474	5,079	3,118	11,163	25,504	15,513	1,350
	누계	476,754	373,723	103,031	175,626	84,215	54,241	41,152	121,520	265,464	162,084	49,206
2023	1월	35,649	28,695	6,955	11,685	5,608	5,619	3,197	9,540	17,022	14,187	4,440
	2월	35,118	26,500	8,618	13,171	5,511	5,129	2,806	8,501	21,270	10,317	3,531
	누계	70,767	55,195	15,573	24,856	11,119	10,748	6,003	18,041	38,292	24,504	7,971
증감률	전년동기(B/A)	2.2	1.0	6.2	0.2	△15.0	8.3	6.3	15.9	△7.4	24.4	14.6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축산물 검사실적 순기보고'





## 미국, 소 두수 감소로 국제 쇠고기 가격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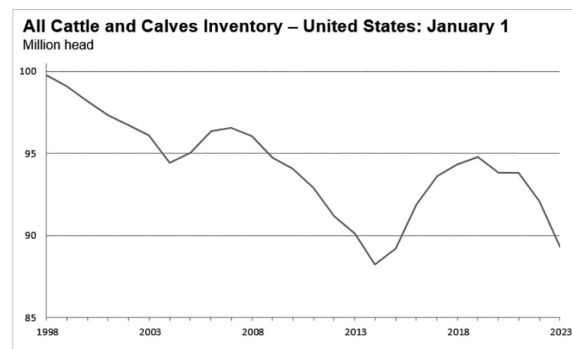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 미국 농무부가 2023년 1월 31일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월 1일 기준, 미국 전체 소 두수는 8,927만 마리로 지난해(2022년 1월 1일) 9,208만 마리보다 3% 적고,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두수

- ▷ 1월 1일 육용우 마리수는 2,892만 마리로 1년 전(2998만 두)보다 4% 줄어, 196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이는 햄버그 및 스테이크 등, 소고기를 원료로 이용하는 제품가격이 앞으로 비싸질 것이라는 의미

- ▷ 젖소는 940만 마리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2022년 송아지 생산 두수는 3,446만 마리로, 2021년(3,517만 마리) 대비 2%가 감소
- ▷ 젖소는 940만 마리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2022년 송아지 생산 두수는 3,446만 마리로, 2021년(3,517만 마리) 대비 2%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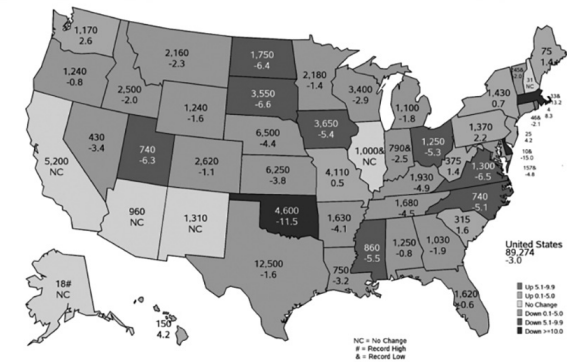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소와 송아지 총 마리수 : 2023년 1월 (백만두)

■ 소 사육두수가 줄어든 요인은 몇 년 동안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많은 소 사육 농가가 소를 정리해야 했기 때문

- ▷ 2021년 미 농무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축산농가의 40%가 사육두수 일부를 청산하게 되었고, 전문가들은 2022년에 그 숫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 블룸버그사 기자인 허츠(Hirtzer)와 엘킨(Elkin)은 “미국 평원에서 수년간 지속된 가뭄으로 목초지가 시들었고 건초와 옥수수를 포함한 사료 공급을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목장주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동물들을 정리했고, 번식을 억제했다”고 분석

### USDA January 1, 2023 Cattle and Calves Inventory (1,000) Head and Percent Change from Previous Yea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January 31, 2023

January Cattle and Sheep and Goats. Agricultural Statistics Board Briefing-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Travis Averill, Chief Livestock Branch  
(January 31, 2023).

[그림 2] 2023년 1월 지역별 소 마리수 (천두)

- ▷ 비육우 산지로 유명한 텍사스 주에 대해, 미 농무부(USDA)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목초지와 방목 조건이 '수분부족과 추운 날씨 때문에 대부분 열악하다'고 분석

■ 미국 농무부(USDA)의 축산 분석가 셰일샤감(Shayle Shagam)은 “생산자들이 여전히 사료의 가용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 USDA의 게리 크로포드(Gary Crawford)는, “가뭄 상황이 완화되고 생산 낙관론이 올라가더라도, 2025년까지 어떤 확장의 결과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
- ▷ 한편, 소 가격은, 축산농가들이 소를 목장에 들여놓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게다가 육가공업자들은 도축용 소 부족으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국제 시장에서 미국은 쇠고기 수출국이면서 수입국이기도 한데, 미국내 쇠고기 부족으로 미국이 쇠고기 순수입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 ▷ 이는 호주산 쇠고기의 미국으로의 수출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주요 쇠고기 수입국의 수입가격 상승도 유발할 것으로 보임

자료 : 미국 농무부(USDA) 보도자료(23.1.31), Agricultural Economy(23.2.1)





## 미 농무부, 소 이동 규칙개정에 관한 공청회 실시

■ 미국 농무부 동식물 검역국(USDA/APHIS)은 2023년 1월 19일 가축의 이력추적제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

- ▷ 이번 규칙안은 주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소와 바이슨(Bison)<sup>1)</sup>에 대해 시각적 전자적으로 식별 가능한 이표 장착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 농무부(USDA)는 3월 20일까지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할 계획
- ▷ 현재 소와 바이슨에게는 전자식별 기능이 없는 이표 사용도 허용되고 있는데, USDA에 따르면 이 이표는 연간 약 1,100만 장, 국내 개체수의 11%에 해당하는 마릿수에 사용되고 있음

■ 이번에 전자식별 가능한 이표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이표를 육안으로 읽기 위한 가축의 구속이 불필요해지고, 전자 리더에 의한 판독을 실시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로 옮겨지는 오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USDA는 “이번 변경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외에 개정 내용으로서, 데이터베이스 입력 내용을 필요에 따라서 USDA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기록 요건의 명확화 등을 제안하고 있음
- ▷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최종 규칙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지 6개월 후, 소와 바이슨의 주(州)간 이동을 위해 시각적 및 전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이표 사용이 의무화됨
- 다만, 현 단계에서는, 규칙의 최종적인 개정일은 미정

■ 업계 단체들은 규칙에 유연성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 본 규칙의 개정에 대해, 전미 최대의 육우 생산자 단체인 ‘미국육우생산자 협회(NCBA)’는, “USDA는 전국적으로 중요한 가축이력추적제도 규칙 확립에 노력해왔다”라고 USDA의 대응을 평가하고 있음
- 한편으로 “최종 규칙은 유연성과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확보한 후, 생산자의 비용부담이나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육우 생산자에 대한 배려를 요구
- ▷ NCBA는 또 협회가 제안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앞으로 개정안 내용을 정밀 조사할 계획

<sup>1)</sup> 바이슨(Bison)은 쇠과의 하나로 일명 미국 들소

## 일본, ‘축사특례법’ 대상에 보관창고 추가

■ 2023년 4월 1일부터 ‘보관창고’가 ‘축사특례법’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축사 비용 절감 및 행정절차 부담 경감이 가능해짐

- ▷ 축사특례법(축사등 건축 및 이용 특례에 관한 법률)은,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덜고 축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축사는 엄격한 건축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광역지자체(도도부현) 별 축사건축이용계획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기술기준만 충족하도록 함
- ▷ 대상이 되는 축사는 ‘일반축사’ 및 ‘퇴비사’로, 당초에는 농기계 및 사료, 깔짚 보관창고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음
- 이번에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관창고가 축사특례법의 대상이 됨

■ 축사특례법의 장점은 건축 확인이 불필요하며, 건축물 구조에 대한 기술기준이 완화된다는 데 있음

- ▷ 이용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구조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가 건축기준법에 비해 완화되어, 건축기준법 기준에 맞추어 건축하는 축사에 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한 동(棟)당 바닥면적이 3,000㎡ 이하는 기술기준 심사 등이 불필요하며, 목조축사의 경우 사이를 교량 건물로 연결함으로써 3,000㎡를 넘을 수도 있음
- ▷ 공사완료 시는 준공검사 없이 신고만으로 완료 가능

■ 이번에 추가된 보관창고에는 ‘일반창고 및 차고’ 축산 경영에 필요한 ‘저수시설’, 높이 8미터 초과 ‘발효조’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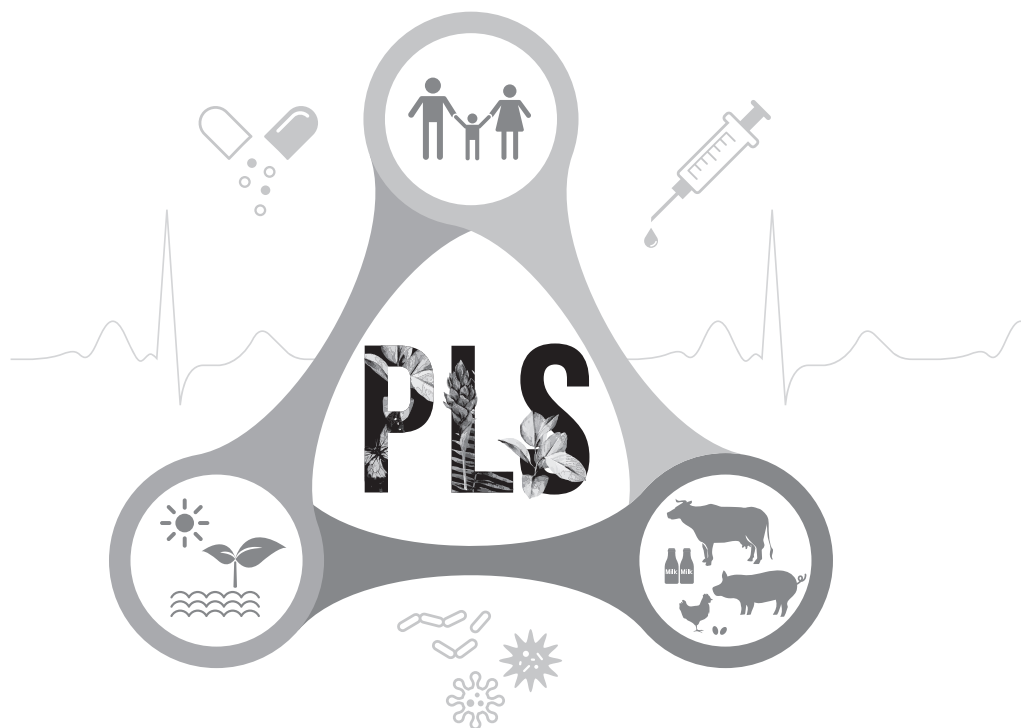
- ▷ 발효조는 가축배설물 처리 및 보관을 위한 건축물에 한함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

## 2024년부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



### 1단계 축산물 PLS, 꼭 알아야 할 사안은?

2024년부터는 5대 축산물인 소, 돼지, 닭, 우유, 계란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미허가 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0.01mg/kg (0.01ppm)을 일괄 적용한다는 것이 1단계 시행 내용입니다.

염소, 오리 등 소수 축종과 농약은 1단계 시행 대상이 아니며, 2단계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은 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축산물 잔류검사 후 적

합, 부적합을 판단하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허가된 동물용의 약품을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용법, 용량, 휴약기간을 지켜 사용하신다면, 이미 1단계 PLS 시행을 철저히 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 PLS란 무엇일까요?

PLS(Positive List System)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인데, PLS 제도의 근거는 식품 안전관리의 기본법인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한 잔류물질 안전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식품 내 잔류허용물질은 목록 즉 식품공전에 그 허용기준치를 정해 관리하고 그 목록에 없는 물질은 일괄적으로 불검출 수준의 0.01mg/kg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축산물 PLS 시행을 예고한 「식약처 고시 제2021-54호」를 살펴보면 「축산물의 경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의 경우 「어류」는 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0.01mg/kg 이하를 적용한다. 다만,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을 적용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정해 놓은 이유는?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 중 축산농가는 항균제, 항생제, 구충제 등 다양한 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동물용의약품은 사람이 먹는 최종 식품에 잔류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동물에게 동물용의약품을 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했을 때 건강상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축산물 등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또는 대사물질)의 양을 근거로 기준을 설정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설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 동물약품·농약 등 잔류허용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가요?

국가마다 축산환경 등 생산시스템이 달라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성분 또는 잔류허용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축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농약, 사용금지, 면제물질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으로 413종을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67종, EU는 671종, 미국은 129종입니다. 해당 국가의 생산시스템과 수출입 여건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내 잔류물질 검사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국가 잔류물질 검사제도를 1991년도부터 시행해 왔으며, 국제기준에 준하는 검사물량과 항목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잔류물질 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을 도축한 후 가축의 근육·신장 등을 검사하며 결과는 「식품공전」 기준에 따라 초과하면 폐기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합니다. 또한, 해당 농장은 6개월간 규제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의무적 잔류검사(3회) 대상이 됩니다.

축산물 잔류검사에서 기준이 없는 잔류물질이 검출되면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요? 식약처에서는 CODEX 국제기준, 국내 유사 축종 기준 등을 참고하여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엄격한 정량한계(불검출 기준)를 적용할 수 있어서 폐기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5대 축산물인 소·돼지·닭·우유·달걀 대상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철저히 준수  
국산 축산물 안전성 홍보...신뢰 확보를



### 축산물 PLS 제도는 우리나라만 시행할까요?

일본에서는 2006년부터 PLS(0.01ppm)를 시행하였고, 미국은 1985년에 PLS보다 강한 zero tolerance를 운영 중이며, 유럽은 2008년도부터 농약에는 PLS, 동물용의약품에는 zero tolerance를 적용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계기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 중 하나로 검토되어, 관련 부처와 생산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도입 시기와 범위 등 현장 준비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도에 단계적 시행에 합의하여 2024년 1단계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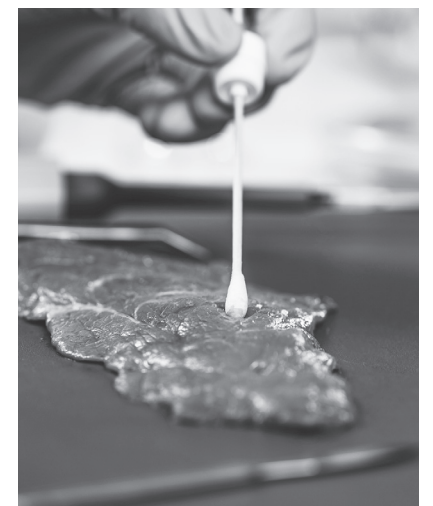
1단계 PLS를 2024년도부터 시행하되, 주요 5대 축종(소, 돼지, 육계, 산란계, 젖소)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외)품에만 우선 적용하는 것입니다. 염소, 양, 오리 등 소수 축종과 농약으로 확대하는 2단계는 향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축산물 PLS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농식품부에서는 1단계 PL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중점 과제를 발굴하여 지난 5년여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2019년에 먼저 시행한 농산물 농약 PLS 운영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동물 의약품 확충, 동물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비, 식품 잔류허용기준 정비입니다.

11,000개 축산농가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농가에서 자주 사용하는 약품이지만 미등록 약품을 파악했습니다.





소와 젖소 모두 사용하는 약품 중 식품 잔류허용기준 상 식육과 우유가 다른 경우, 고기용 소와 젖소의 용법과 휴약기간을 다르게 사용하도록 안전사용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에, 전체 동물약품을 대상으로 투약방법, 용량, 휴약기간 등 축종별 안전사용기준을 재점검하여 사용기준 준수에도 잔류 피해 발생 우려 약품을 발굴하여 4년간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험조사를 거쳐 안전사용기준 재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금년 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식품공전에 잔류허용기준이 없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현재 허용된 약품은 식품공전에 잔류기준이 등재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동물용의약품 처방·유통·사용 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은?

항균·항생제의 오남용 방지는 동물 질병에 대한 정확히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임상수의사 처방 의무 대상 약품을 항생제 32종에서 항균·항생제 전체 성분으로 확대하였고, 처방 내역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동물약품 사용의 주체인 농가에서 동물약품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당부하고자 축종별 교육동영상과 교육 자료를 현실화했습니다.

우선, 1단계 PLS 대상인 5대 축종별로 동물약품 주의사항을 담아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11만 축산경영인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축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교육용 외국어 버전도 마련하여 농식품부 누리집에 등재하였으니 언제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중에 축산물 PLS 교육을 재정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한우 사육 농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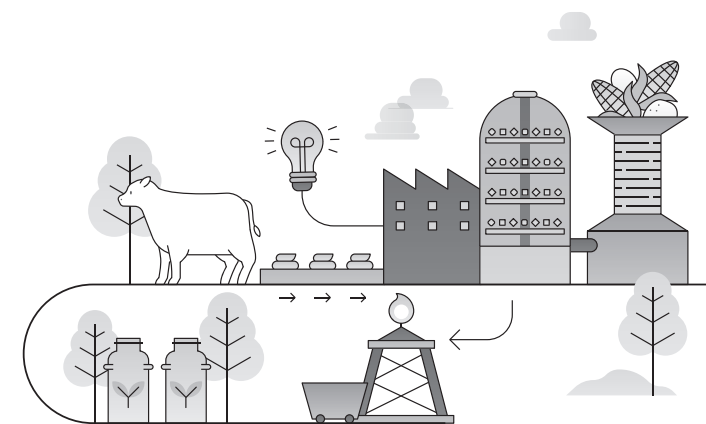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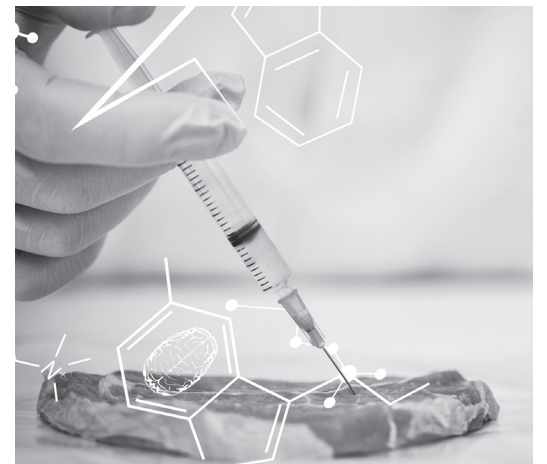
PLS 시행과 무관하게 지금까지 해오신 것과 같이, '소에 허용된 동물약품을 수의사처방을 받아 구매하셔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시는 것'입니다.

식품 잔류허용기준을 이미 재정비하여 허용된 약품 중 기준이 없어 0.01mg/kg을 적용하는 약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은 식품공전에 잔류허용기준을 모두 마련하였고, 이미 잔류물질관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PLS 시행으로 사실상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현재도 허용되지 않은 동물약품을 사용하셨다면 부적합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축산물 잔류 검사의 부적합율은 0.08%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유럽·미국(0.2~0.3%) 등 해외보다 3배 이상 높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한우 농가 여러분께서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오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산 축산물 안전성이 국민 신뢰와 소비로 이어지도록 PLS 시행을 대국민 홍보 기회로 활용하는데 농식품부가 앞장 서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한우의 우수성이 맛과 품질을 넘어 '안전'하다는 국민 신뢰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Con  
sulting BA플러스



## 관행 방식과 TMR, TMF 사료 급여의 특징 및 유의사항

번식우-육성우 단계 TMR 방식으로 급여  
본격 비육단계 배합사료 위주로 사양관리  
농가 스스로 급여 방식 점검 능력 키워야

### 1. 관행 방식과 TMR, TMF 급여 방식의 차이점

과거 관행 방식(배합사료+조사료)과 TMR 급여 방식이 한우 사양 시스템의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TMR 보다는 TMF 방식을 더 접하게 된다. 먼저 이에 대한 용어정리를 간단히 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TMR이란 Total mixed ration의 약자로서 소가 하루 동안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도록 농후사료, 조사료 및 첨가제를 혼합하여 비빔밥 형태로 급여하는 형태를 말한다.

근래에는 TMF 사료라 하여 개선된 TMR 급여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TMF 사료는 Total mixed fermented ration의 약자로서 TMR이 단순 형태의 혼합 급여 방식이라고 한다면, TMF는 발효(효모)제와 유산균제들을 첨가한 후 발효 과정을 통하여 기호성 개선 및 소화 흡수율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개발된 발효사료 뜻한다. 일반적으로 TMR사료 개념이 TMF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에 건립되는 TMR 공장은 거의 대부분이 TMF 생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표 1]에는 관행 방식과 TMR 방식, TMF 방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2. 관행 방식과 TMR 급여 방식의 효율 성비교분석

#### 가. 경제성

TMR 급여의 장점으로는 조사료 혼합 급여에 의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사료비 절감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료비 절감에 의한 경제성 확보 면에서는 실제 농가에서도 이에 대한 이견이 많으며, 원료 확보 종류 및 가격과 배합비 운영, 수익 배분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로서 단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한우농가에서는 어느 방식이 더 좋은지

[표 1] 사료 급여 시스템의 주요특성 비교

구분	관행방식	TMR 방식	TMF 방식
급여 방 법	배합사료+조사료 (분리급여)	농후사료+조사료 (혼합급여)	농후사료+조사료 +발효(혼합발효)
장 점	정확하고 과학적인 배합비 운영	반추위 안정화, 경제수명 연장	생물학적 발효기법 소화율, 섭취량 향상
단 점	반추위 불안정, 대사성 질병 우려	완전 영양공급 한계, 정교함, 안전성 취약	정확한 TMF 제조 및 급여의 어려움

양분론적인 질문을 많이 받는데 TMR 공장의 급증과 제한된 부존 자원, 원료 가격의 인상 등으로 경제성에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반적으로 TMR 급여 시 관행 방식에 비해 사육 기간의 연장에 따른 사료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실상 사료비 자체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 나. 사육 성적(급여 시기)

한우농가에서 많이 하는 질문으로 관행 방식과 TMR 급여 방식을 전 단계 모두 적용하는 것이 생산성에 좋은 것일까? 아니면 특정 단계에서 각 방식을 부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 물론 그 이유는 배합 설계 및 원료 운영에 따라 급여 사료의 품질 및 급여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 선도 농가의 경우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TMR 급여는 본격적인 비육이 개시되는 20개월령 전후까지 급여를 하고 그 후 기간은 출하 때까지 배합사료 위주로 급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로서 [표 2]를 들 수 있는데 [표 2]는 한우 TMR 배합비 작성 시 성장 단계 별 권장 영양소 수준이다.

[표 2]에 나타나 바와 같이 비육후기로 갈수록 조단백질의 함량은 낮아지고 TDN(가소화 총 영양소 함량)의 함량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TMR 배합비 작성 시에 이 부분을 주로 고려하게 되는데 문제는 국내 유통 TMR 사료의 대부분은 수분 35% 이상의 습식 TMR 이란 사실이다.

즉 수분이 35~40%를 차지하는 만큼 나머지 60~65%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TDN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건물 기준

[표 2] 성장 단계별 거세한우 TMR 주요 영양소 설계기준(건물 기준)

구분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조단백질(%)	14~16	13~14	11~13
TDN(%)	70	74~76	78~80
조사료 비율(%)	35이상	23이상	10이하



TDN 함량이 89%인 옥수수과 88%인 밀 등의 곡류사료 위주로 급여하지 않고서는 TDN을 맞추어 주기가 대단히 어렵다. 물론 TDN 값이 높은 종실류나 보호지방을 이용 할 수 있으나 가격과 기호성 문제로 실제 이용에는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TMR 전용 농가에서도 TMR을 급여하면서 후기에는 따로 배합사료를 급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3. 맺음말

이상과 같이 급여 방식 별 특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단편적인 몇 가지 자료로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기는 대단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각 TMR 제조공장마다 원료 활용과 구입 가격, 배합비 설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 단계 배합사료 위주의 관행 방식 사육은 평균 사육 기간이 30개월 이상인 되는 현실에서는 완벽한 반추위 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TMR 방식은 농가별, 공장별 급여 성적의 차이가 매우 심하며 이용 원료의 제한에 따른 희망 배합비 작성의 어려움, 수분 변이에 의한 영양소 불균형 및 섭취량 기복현상 발생, 정기적인 분석 부족으로 배합비의 부정확 등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크게 상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권장할 방법으로는 번식우와 육성우 단계에서는 TMR 방식, 본격적인 비육단계에서는 배합사료 위주로 사양관리를 운영한다는 점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우 농가 스스로가 지금의 사료 급여 방식이 적당한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 수의칼럼



류일선  
아시아동물의학연구소장  
수의학 박사

## 한우 전염병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백신접종 요령과 방법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11월 28일 돼지, 다음날인 11월 29일 한우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연 2회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장기간 접종에 따른 피로 누적과 부작용 발생을 호소하고 있으나, 국가방역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이니만큼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방법으로 접종을 하는 것이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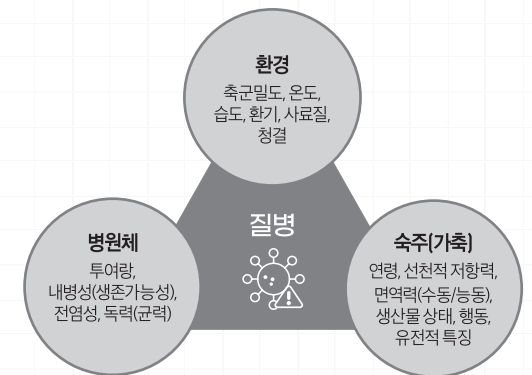
한우를 비롯한 가축에 있어서의 감염증으로 한 개체로부터 다른 개체로 전파하는 성격을 가진 것을 가축전염병이라고 하는데, 각종의 세균, 진균(곰팡이), 리케차류, 바이러스, 원충이 병원체가 있으며, 악성이고 경제적 피해가 크거나 사람에게도 옮겨 공중보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1종(15), 2종(24)과 3종(5)으로 구분하고 있고, 또한, 동물에서 사람으로 혹은 사람에서 동물로 전염되는 병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전염되면서 병원성이 강해지거나 증식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병(증), 탄저병, 광견병(공수병),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소 해면상뇌증<변종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 큐열, 결핵병이 있다.

따라서 소, 돼지, 닭 등의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각종의 예방약(병원체 또는 그 독소를 면역원)을 접종해서 충분한 면역을 얻도록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저항력)을 키움과 동시에 유효한 약제의 적정사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 1. 한우 위생관리의 기본

사육 한우 우군에 대해 효율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체의 생활주기(cycle), 감염경로 및 저항력 등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하며 합리적인 위생관리와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림 1] 한우 질병발생의 3요소

### ○ 한우 질병발생의 예방대책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의 세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을 제거한다면 가능하다.

#### ▷ 병원체의 침입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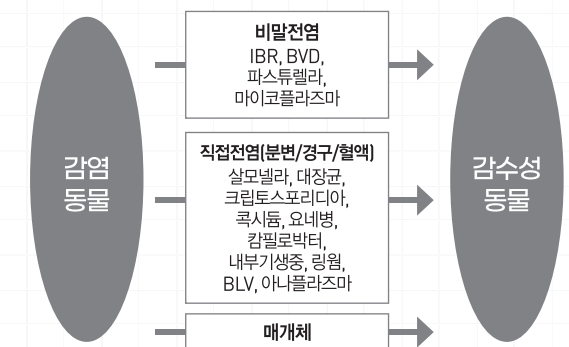
- 축사내에 존재하는 병원체에 대해서는 소독 등을 철저히 해서 모든 병원체를 살균 또는 불활화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병원체의 침입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독은 위생관리의 기본이며, 합리적인 소독은 대단히 중요한 전염병대책이며, 소독과 아울러 중요한 것은 병원체를 축사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 ▷ 백신의 이용과 건강관리

- 소, 돼지, 닭 등의 감수성동물에 대해서는 각종의 예방약을 접종해서 충분한 면역을 얻도록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저항력)을 키움과 동시에 유효한 약제의 적정사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약은 적기에 실시하여 충분한 면역이 얻어지게 하여 감염발병을 예방하도록 한다.



사진 : 아시아뉴스통신



[그림 2] 한우 질병의 감염경로

▷ 감염경로를 차단

- 질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으로 되는 병원체를 감수성동물(소, 돼지, 닭 등)에 전파하는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하며, 주로 매개체로서는 소, 돼지(보균돈), 사람, 동물(개, 고양이 등), 차량 등으로 광범위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돼지 사육환경의 개선, 정비 및 관리규제의 철저 등이 뒤따라야 한다.
- 질병의 감염경로를 가능한한 차단함과 동시에 특히 병원체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든 소, 돼지나 보균돈(불현성감염돈 등)의 격리 또는 도태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한우 농가들은 소독철저, 예방주사의 철저 실시, 소, 돼지, 닭 등의 사육환경개선정비 및 방문객 통제 등을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만이 질병발생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다.

## 2. 한우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각종 전염성질병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감독시킨 생독, 사독 또는 독소를 인위적으로 접종함으로써, 가축 개체에 대해 면역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산생시키고 감염된 개체의 저항력을 높여 병원체의 침입을 받더라도 발병을 일으키지 못하는 정도의 저항력을 부여하는 생물학적인 제재 즉 예방접종약이 사용된다.

전염병의 상재지에서는 예방접종약의 사용에 의해 장기간의 면역성을 부여하는 데 응용하고 있으나, 면역획득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된다는 결점이 있다.

## 3. 예방접종의 횟수와 항체형성과의 관계

- ▷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이 1차로 그치지 않고 2차접종 또는 이후의 지속적인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접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방접종에 의해 가축체내에 형성된 항체수준 즉 체내의 질병 방어수준이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대해 방어수준 이하로 저하되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예방접종약의 대부분은 평생면역을 보장할 수가 없어 항상 예방접종을 적기에 정확히 실시하여 항체(방어)수준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 또한 2차 및 보강접종은 1차접종시 보다도 항체생산량을 훨씬 많은 량을 생산케 하여 면역증진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1차 백신접종 후 2차 접종시면역반응이 증강됨 (Booster effect)
- ▷ 과다접종(Over-Vaccinate)을 하지 마라!
  - 한번 항체가 잘 형성된 소는 필요시 기억세포(memory cell : 항원을 기억하고 있는 면역계의 세포)면역계 세포중에서 항원자극을 받아 그 항원과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갖게 된 세포가

증식한 후에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같은 항원이 재차 침입하면 첫 번째보다 신속하고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 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임)로 인해 항체를 빠른 속도로 항체를 만듦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하지 않다.

## 4. 어린 송아지에서 백신접종이 면역간섭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 ▷ 모체이행항체 간섭현상(3개월령 또는 그 이상까지 지속)
- ▷ 어린 송아지에 백신 접종시 비효과적(초유항체와 백신항원간 간섭현상, 송아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
- ▷ 송아지의 활성화면역계가 완전하게 기능을 하지 않음

## 5. 한우 예방접종 프로그램(예시)

예방접종	접종대상	접종시기	접종방법	비고
탄저 + 기증저	6개월령 이상 전두수	4월	피하주사	2종
파스튜렐라성 폐렴	자우	1개월령	근육주사	1종
호흡기 복합백신 Infectious Bovine Rhinotracheitis virus [소 전염성비기관염] Bovine viral Diarrhea virus [소 바이러스 설사병] Myxovirus Parainfluenza3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Bovine Respiratory Syncytial virus [소 합포체성폐렴] Haemophilus somnus 등 [헤모필러스감염증]	성우	1차: 4월 2차: 10월	근육주사	5종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로타+코로나+대장균)	성우(초임우)	1차: 분만 5~6주전 2차: 분만 2~3주전	근육주사	3종
	성우(경산우)	1차: 2~3주전		
아까바네병	성우	3월	피하주사	1종
	6개월령 이상 육성우	1차: 3월 2차: 4월		
유행열	성우	5월	근육주사	1종
	6개월령 이상 육성우	1차: 5월 2차: 6월		

이상과 같이 한우에 있어서 예방접종 시 개요, 주의사항과 프로그램(예시) 등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가올 4월과 10월에는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기타 송아지 설사병과 모기매개 질병인 유행열, 아까바네병 등의 예방접종을 시기에 맞춰 정확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전문가 칼럼



김병숙  
한국종축개량협회  
경기인천지역본부장

# 한우경매우시장 출품우 기준을 표준화 하자

농가라면 누구나 능력이 좋은 소를 원한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절실하다. 잘 아시다시피 능력이 우수한 소를 보유하려면 10년이상 오랜 시간에 걸쳐 농가 스스로 개량하거나, 아니면 이미 개량된 소를 구입해야한다. 따라서 이번호에는 소를 구매하는 경매우 시장에 초점을 맞춰, 출품우 기준과 현황 그리고 출품 전 해야할 일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경매우시장은 전국적으로 지역축협 90곳에서 매달(1회~6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최근 들어 많은 예산을 들여 ICT를 활용한 스마트 전자경매우시장으로 변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우시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PC나 휴대폰으로 경매에 참여할



[그림 1] 경매우시장 개체정보 현황판



[그림 2] 경매우시장 출품된 송아지 모습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오직 외모만을 보고 구매하던 예전의 우시장과는 격세지감이다.

대부분 우시장에서는 개체에 대한 기본정보(KPN, 생년월일, 산차, 계대 등)를 <그림1>처럼 현황판에 제공하고 있으며,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경우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제공하는 한우 개량정보 조회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출품우에 대한 많은 정보뿐만 아니라, 형매·후대축 도축정보도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하였다. 다만, 법정 전염병 검사를 제외한 출품우 기준(개월령, 제각, 친자확인 검사, 거세여부 등)이 조합별로 제각각이라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이러한 경매우시장 출품우의 기준을 일원화하여 구매자의 욕구에 맞추어 준다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1) 거세하고 우시장에 출품하자

거세시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4~6개월령에 거세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경매우시장 출품월령은 조합별, 성별에 따라서 숫송아지는 대부분 비거세 상태로 6~8개월령, 암송아지는 6~12개월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숫송아지의 경우, 거세가 권장되는 월령(4~6개월령)에 거세를 하고 출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경매우시장에서 비거세 상태로 입식하여 거세할 경우 실제 거세월령은 9~10개월에 되는 것으로 도체성적(육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의 경우는 5개월령에 거세하여 10개월령에 우시장에 출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거세하고 경매우시장에 출품하는 것이 향후 도체성적까지 생각한다면 농가에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전문가  
칼럼

경매우시장  
출품조건 맞추려면  
추가적인  
경비-노력 필요

지자체-조합,  
일정부분  
예산지원

농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필수



## 2) 제각하자

제각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소가 온순해지며, 뿔에 의한 상처나 유산 등의 사고발생이 적어지고, 관리하기도 편하다. 이러한 장점을 알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또 한편으로는 ‘내가 키우지 않을 거니까’라고 생각하며 제각을 생략하고 우시장 출품하는 일이 잦다. 구매자도 제각한 소를 원하기에 이러한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제각은 생후 15일 이내에 제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시기에는 뿔이 돌아나는 부위인 각근이 작고 연해서 제각이 쉬우며, 송아지의 고통이 적고 보정이 쉽다. 뿔이 날 자리의 털을 가위로 2~3cm 깎아 내고 그 자리에 제각연고를 묻혀 동전 크기로 발라주거나, 잘 달군 인두로 제각 부위를 10~20초 간격으로 지지는 2가지 방법이 있다.

## 3) 친자확인 DNA검사 실시

송아지 경매우시장에서 개월령과 발육상태가 비슷하지만 가격에서는 50만원~1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혈통에 따른 형매·후대축의 성적과, 유전능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혈통을 믿고 웃돈을 주고 구매했는데 친자가 맞지 않는다면 판매자는 물론이고 해당조합 경매우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

근래에는 이와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에서 출품하기 전에 친자확인 검사를 하는 우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친자확인 DNA검사를 한 송아지가격이 10만원~20만원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3] 전자경매우시장 전경

이와 같이 경매우시장 출품조건을 맞추려면 추가적인 경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바람직한 우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자체나 조합에서 일정부분 예산 지원(친자확인 검사비용, 제각연고 등)을 한다면 더 좋겠다.

농가에서는 일정부분 부담을 하더라도 부담한 금액이상이 송아지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는 결국 경매우시장의 원활하며 투명한 거래를 위한 일이며, 농가(번식농가, 비육농가)와 조합, 더 나아가 한우산업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다.

[그림 4] 우량암소로 선정된 한우등록증서



# 2022년 한우사육농가 경영실태 및 농가인식조사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 1. 서론

### 가. 한우사육농가 경영실태 및 농가인식 조사배경 및 목적

-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생산지수<sup>1)</sup>에 따르면 한우의 2021년 생산액은 5조 7,246억 원으로 이는 당해연도 농업 생산액(48조 6,692억 원)의 11.8%에 달하고 축산업 생산액(18조 7,819억 원)의 30.5%를 차지하는 높은 생산액을 기록하였음
  - 지난 30년간 한우산업은 경쟁력 강화 정책 등으로 지속 성장하여 생산액 기준 '90년 0.9조원에서 '20년 5.7조원으로 약 6배 상승하였음
  - 한우산업 생산액은 농림업 생산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업 생산액 중 28%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농촌경제에서 단일품목으로는 미곡(8.4조원), 돼지(7.2), 한우(5.7)의 순으로 3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함
  - 즉 한우는 생산액 기준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체 농림업의 주요 3대 주요 품목 중 하나로 우리나라 식량수급의 주요 역할을 해온 품목이라고 할 수 있음
- ◆ 2021~2022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우산업은 다른 축산물에 비해 호황을 누렸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호황 속에서도 사육마릿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료비 상승은 한우 농가의 불안감을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 ◆ 또한 지속적인 축산업 규제 정책과 탄소중립 문제, 국제유가 및 국제곡물가 그리고 환율의 상승으로 사료가격은 천정부지로 급상승하여 농가 수익성과 지속 사육 의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연결되었음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지수, 2021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 국가통계포털, 가축동향조사, 2022년 2사분기

- CPTTP와 같은 메가급 대규모 시장개방과 수입 쇠고기 시장 확대 속에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하에 수입 쇠고기의 무관세 수입으로 한우사육농가의 경영안정성은 악화일로(惡化一路)에 접어드는 형국에 놓여있음
-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사육 및 생산 일선에서는 미경산우·경산우 비육지원사업 등과 같이 암소 자율감축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국제 곡물가격 상승, 국내 사료값 인상 등으로 생산원가 증가에 따른 부담감이 높아짐에 따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 이와 같이 한우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임
- ◆ 이에 본 조사에서는 한우사육농가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농가인식 확인을 위하여 전국한우협회 회원농가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자료 도출이 가능한 조사를 실시함

### 나. 한우농가 경영실태 및 농가인식 조사체계

#### 1) 조사모집단 설정

- ◆ 본조사의 기획 시기인 2022년 2사분기 전국 한우사육 농장수는 89,258농장<sup>2)</sup>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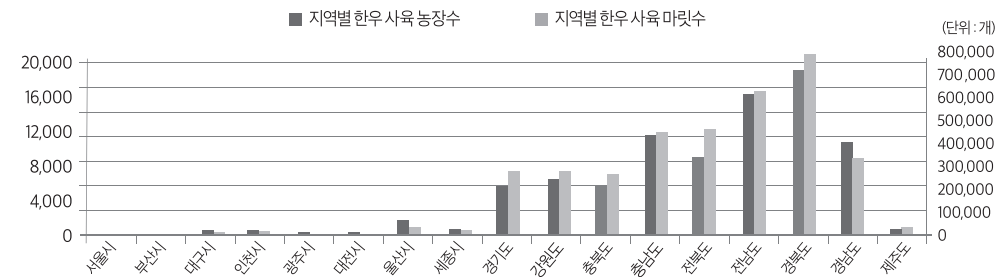
#### 2) 조사모집단 분석

- ◆ 모집단 설정 기간인 2022년 2사분기 전국의 한우 사육 마릿수는 356만 6,945마리이며 사육 농장수는 89,258농장으로 확인됨
- ◆ 한우 사육 농장수는 경상북도(19,343농장), 전라남도(16,536농장), 충청남도11,487농장) 등의 순으로 확인됨
  - 위 3개 지역의 사육 농장수가 전체 농장수의 53.07%를 차지하고 있어 한우 사육 농장의 지역 편중이 심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 한우 사육 농장수

사육규모별	2021.1/4	2021.2/4	2021.3/4	2021.4/4	2022.1/4	2022.2/4
합계	89,138	89,711	89,786	89,824	89,501	89,258
20두 미만	47,840	46,247	45,621	45,950	45,809	43,836
20~50두 미만	22,171	22,857	23,162	23,100	23,161	23,414
50~100두 미만	11,830	12,580	12,855	12,776	12,682	13,372
100두 이상	7,297	8,027	8,148	7,998	7,849	8,636

자료 : 한우 시도/사육규모별 농장수 및 마릿수, 가축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



자료 : 한우 시도/사육규모별 농장수 및 마릿수, 가축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

[그림 1] 지역별 한우 사육 농장수 및 사육 마릿수 분포 현황

[표 2] 지역별 한우 사육 농장수 및 사육 마릿수

시도별	사육 농장수	사육 마릿수	시도별	사육 농장수	사육 마릿수	시도별	사육 농장수	사육 마릿수
전국(합계)	89,258	3,566,945	대전시	166	4,857	충남도	11,487	440,490
서울시	1	54	울산시	1,629	39,638	전북도	9,087	454,834
부산시	90	1,551	세종시	617	27,050	전남도	16,536	619,263
대구시	405	12,468	경기도	5,658	270,874	경북도	19,343	784,086
인천시	447	18,148	강원도	6,552	264,771	경남도	10,722	331,024
광주시	168	4,014	충북도	5,694	255,830	제주도	656	37,993

자료 : 한우 시도/사육규모별 농장수 및 마릿수, 가축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

- ◆ 한우 사육 마릿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78만 4,086마리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라남도(61만 9,263마리), 전라북도(45만 4,834마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우 사육 마릿수 또한 위 3개 지역의 사육 마릿수 비중이 전체 마릿수의 52.09%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편중 심화를 확인할 수 있음

### 3) 한우사육농가 경영실태 및 농가인식 조사의 주요내용

- ◆ 첫 번째로 기본 통계 자료 구축을 위한 회원 농가별 일반 특성(사육경력, 사육·경영형태, 사육규모 등)을 조사하였음
- ◆ 두 번째로는 조사 대상 농가의 경영성 파악을 위하여 수익·부채 현황 및 원인, 산업 지속성 여부 확인을 위한 사육의향, 사육 시 애로사항 등의 조사를 실시함
- ◆ 세 번째는 농가별 사육 특성 확인을 위하여 번식·비육·일관사육 농가별 특성, 인증 유무 등 전반적으로 농가의 사육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병행하였음
- ◆ 마지막으로 사육 농가의 산업 이해도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산업 현안 관련 출하 계획 변경 유무, CPTPP 관련 사육 의향, 수급안정을 위한 자율감축 정책 및 사업 필요성 여부 등 농가의 인식 여부를 확인하였음

## 2. 한우 산업 동향

### 가. 기본 현황

#### 1) 한우 생산액

- ◆ 한우의 2020년 생산액은 5조7천246억 원<sup>3)</sup>을 기록하였으며, 전년(5조4천6억 원) 대비 6.0%증가하였음
- 품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생산액이 가장 많았던 쌀(8조4천487억 원), 돼지(6조3천924억 원) 다음으로 많은 생산액을 기록함

[표 3] 농림업 생산액 변화추이

(단위 : 10억원)

품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농림업	47,569.9	47,309.7	50,975.9	51,296.3	51,044.7	50,843.0	49,543.6	50,680.9	52,519.8	52,296.0	52,153.7
농업	45,724.0	45,453.8	48,919.1	49,257.1	48,669.2	48,470.9	42,275.7	48,170.4	50,051.3	49,782.9	50,135.3
1. 재배업	28,252.7	30,412.4	32,825.4	32,944.9	29,794.7	29,259.3	27,977.2	27,992.9	30,269.8	29,859.5	29,769.4
가. 식량작물	8,528.8	10,212.0	10,597.4	10,956.7	9,904.4	9,413.3	8,007.7	8,377.6	10,731.3	10,492.3	10,480.9
1) 미곡	6,787.4	8,008.8	8,117.5	8,531.6	8,153.6	7,697.2	6,391.9	6,619.6	8,401.2	8,350.7	8,448.7
2. 축산업	17,471.4	15,041.4	16,093.7	16,312.2	18,874.6	19,211.6	19,298.5	20,177.5	19,781.5	19,923.3	20,365.9
가. 축산업	17,471.4	14,990.9	16,022.5	16,232.8	18,781.9	19,125.7	19,229.7	20,122.7	19,730.7	19,873.1	20,347.2
1) 가축	13,752.2	11,277.1	12,123.7	12,040.4	14,158.1	14,533.1	14,869.3	15,394.4	15,944.5	15,625.4	16,268.9
한우	4,863.3	3,052.7	3,473.0	3,682.3	4,285.3	4,707.7	5,057.0	4,663.7	5,091.8	5,653.0	5,992.2
한우	4,582.0	2,839.3	3,263.0	3,506.2	4,025.5	4,40.9	4,811.0	4,438.8	4,826.1	5,400.6	5,724.6
돼지	5,322.7	4,544.6	5,348.2	5,009.5	6,615.1	6,967.1	7,756.5	7,338.0	7,118.5	6,392.4	7,117.5

자료 : 2021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

### 2) 한우산업 환경 변화

#### 가) 한우산업 현황

- ◆ 축산물이력제 소 이력관리현황<sup>4)</sup>에 따르면, 한우 사육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 연도별 한우 사육 현황 변화 추이

(단위 : 마리)

구분	계	암	수	구분	계	암	수
2014	2,904,274	1,803,209	1,101,065	2019	3,078,184	1,971,048	1,107,136
2015	2,768,945	1,753,964	1,014,981	2020	3,227,181	2,064,498	1,162,683
2016	2,809,820	1,774,525	1,035,295	2021	3,415,332	2,178,118	1,237,214
2017	2,871,400	1,820,802	1,050,598	2022.6	3,511,160	2,234,717	1,276,443
2018	2,961,521	1,890,596	1,070,925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3) 2021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자료를 발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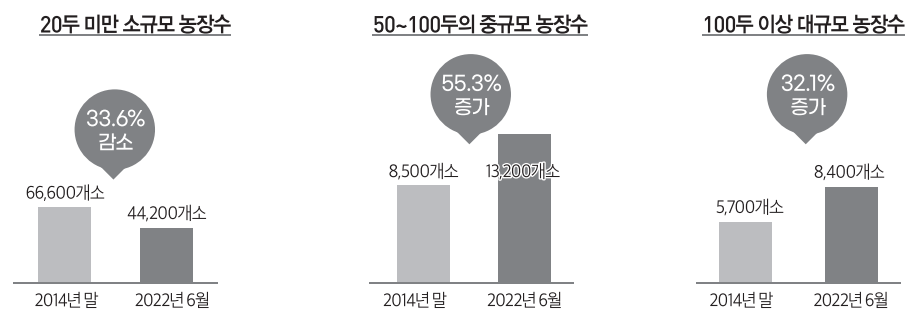
4)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이력제, 소 이력관리현황



## 나. 한우 수급 동향

### 1) 한우 수급 동향

- ◆ 생산시장에서 한우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대표적인 요인이 한우 사육 마릿수와 농장수라고 할 수 있음
- ◆ [그림 2] 한우 사육규모별 마릿수를 살펴보면 사육 마릿수는 증가추세를, 사육 농장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한우농가의 규모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20두 미만의 소규모 농장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50두 이상의 중대규모 농장수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 이는 송아지 생산을 담당하던 소규모 농장의 감소<sup>5)</sup>에 따라 일관사육으로 사육형태를 변경한 농장들이 늘고, 사육비 절감을 위해 전업화 및 규모화하는 농장들과 대규모 위탁사육 농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그림 2] 한우 사육규모별 마릿수

### 가) 한우 사육 농장수

- ◆ 한우 농장수는 2006년부터 추진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FTA에 따른 사육환경 불안감과 생산비 부담, 소규모 농가의 경영악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농장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한우 사육농장은 2022년 6월 기준 8만9천2백 개소로 10년 전인 2011년(15만7천5백 개소)보다 76.6%가 감소했지만 농장 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17.9마리에서 39.4마리로 120.1% 증가하여 지속적인 규모화가 진행되었음

5) 비육농가 대비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번식농가는 위기가 거듭될수록 수익성이 좋은 비육농가로의 전향을 선택한 결과 한우 생산은 일관 사육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하여 비육농가 또한 송아지의 수급이 여의치 않자 일관사육을 택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음

[표 5] 연도별 한우사육 농장수 및 사육마릿수 변화추이

(단위: 천호, 천두, 두)

연도	농가호수	사육두수	호당두수	연도	농가호수	사육두수	호당두수	연도	농가호수	사육두수	호당두수
2006	186.3	1,841	9.9	2012	141.5	2,932	20.7	2018	92.2	2,962	32.1
2007	178.7	2,033	11.9	2013	119.1	2,810	23.6	2019	89.7	3,078	34.3
2008	175.6	2,269	13.4	2014	99.3	2,670	26.9	2020	89.0	3,227	36.3
2009	169.0	2,477	14.7	2015	89.4	2,561	28.6	2021	89.8	3,415	38.3
2010	166.0	2,761	16.6	2016	85.0	2,585	30.4	2022.6	89.2	3,511	39.4
2011	157.5	2,819	17.9	2017	94.1	2,871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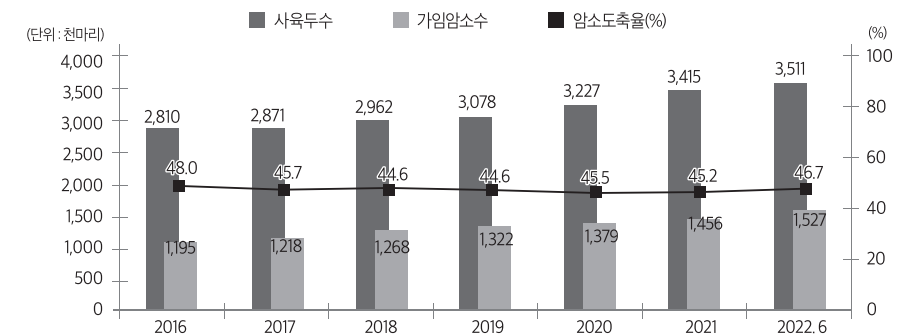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 나) 한우 사육 마릿수

- ◆ 한우 사육 마릿수는 351만1천160마리로 전년 동기(339만9천241마리) 대비 11만1천191마리 (3.3%) 증가하였고, 전 분기(338만5천324마리) 대비 12만5천836마리(3.7%)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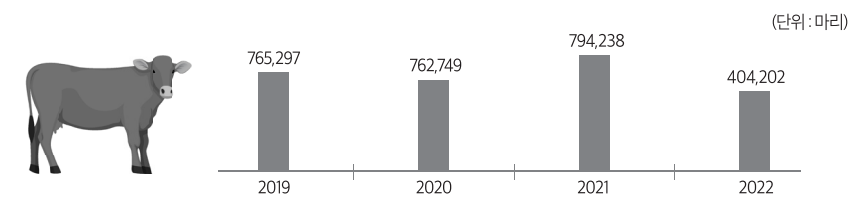
### 다)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 ◆ 월별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현황을 보면 2022년 6월까지 등급판정에 따른 한우 도축두수는 404,202두로 전년 동기(376,103두) 대비 28,099두(6.95%)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한우고기 평균 도매가격은 19,576원/지육kg으로 전년 대비 1,127원(5.76%) 하락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한우 시도/사육규모별 농장수 및 마릿수  
주: 가임암소수는 2세 이상 두수에 1~2세 두수의 1/2를 합하여 산출함

[그림 3] 한우 사육마릿수 및 가임암소 마릿수 변동추이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그림 4] 한우 등급판정 마릿수 현황

2) 수요 동향

가) 쇠고기 소비량

- 2021년 소고기 총 이 71만6천5백 톤으로 전년 동기(66만8천 톤) 대비 4만8천5백 톤(7.3%)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코로나19 여파로 외식 대신 집밥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았기 때문임

◆ 소고기 1인당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자급률은 소고기 수입량 증가에 따라 점차 낮아지고 있음

◆ 2021년 6월 기준, 쇠고기 총 공급량은 국내 쇠고기 생산량 증가와 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71만7천 톤이었음  
- 수입물량의 대폭 증대로 인하여 2021년 국내산 쇠고기의 자급률은 36.8%로 전년(37.2%) 대비 0.4%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6] 연간 국내 소고기 총 소비량 및 1인당 소비량 변화 추이

(단위: %, 천 톤, kg)

연도	소고기 소비 비율		소고기 총 소비량 (천 톤)	1인당 연간 소비량 (kg)
	국내산(%)	수입산(%)		
2011	57.2	42.8	505.8	10.2
2012	48.2	51.8	486.0	9.7
2013	50.3	49.7	519.0	10.3
2014	48.1	51.9	542.3	10.8
2015	45.9	54.1	553.7	10.7
2016	38.9	61.1	593.8	11.6
2017	41.0	59.0	582.7	11.3
2018	36.2	63.8	653.7	12.7
2019	36.5	63.5	672.0	13.0
2020	37.2	62.8	668.0	13.0
2021(p)	36.8	63.2	716.5	13.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자료를 취합하여 재가공하였음

[표 7] 국내산과 수입산의 생산량

(단위: 천 톤)

연도	국내산	수입산	자급률(%)	연도	국내산	수입산	자급률(%)
2011	216.4	289.4	42.8	2017	238.7	344.0	41.0
2012	234.5	251.5	48.3	2018	236.7	417.0	36.2
2013	259.9	257.1	50.3	2019	245.0	426.0	36.5
2014	260.8	281.5	48.1	2020	248.6	419.5	37.2
2015	246.0	290.0	45.9	2021(p)	264.0	453.0	36.8
2016	231.0	362.8	38.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주: 자급률 =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 ÷ 쇠고기 총 소비량

[표 8] 2022년 수입 쇠고기 국가별 점유율

(단위: 톤, %)

구분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기타	계
수입량	153,108	88,390	14,143	14,524	3,825	1,381	275,371
점유율	55.6	32.1	5.1	5.3	1.4	0.5	100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나) 산지가격

◆ 한우 산지가격은 2013년 저점을 찍은 후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였으나 2022년 1월을 기점으로 하락세 전환하였음

◆ 암소와 수소는 평균 2013년 각각 348만원·388만원, 2016년 580만원·565만원, 2020년 611만원·545만원, 2021년 646만원·625만원으로 송아지 가격과 마찬가지로 2011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2022년에 들어 가격이 하락하였음

다) 경락가격

◆ 2022년 1월~6월 한우 경락가격은 19,644원으로 전년 동기(21,732원) 대비 9.6%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경락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어 2023년 1월 기준 약 25%까지 하락함.  
◆ 2022년 6월까지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5.1%로 2021년 동기간(74.3%)보다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육량 등급별 평균 출현율은 A등급 25.2%(전년 동기간 대비 1.4%p 상승), B등급 52.3%(0.2%p 상승), C등급 22.2%(1.7%p 하락)로 나타났음

[표 9] 연도별 한우 산지가격 변화추이

(단위: 천 원)

연도	암송아지 (4~5개월)	숫송아지 (4~5개월)	암송아지 (6~7개월)	숫송아지 (6~7개월)	큰암소 (600Kg)	큰수소 (600Kg)
2014	1,494	2,380	1,750	2,494	4,334	4,173
2015	2,188	2,900	2,374	2,925	5,148	4,930
2016	2,645	3,471	2,902	3,583	5,809	5,650
2017	2,612	3,444	2,919	3,572	5,406	4,732
2018	2,708	3,249	3,130	3,857	5,659	4,930
2019	2,790	3,394	3,212	3,930	5,646	5,476
2020	3,060	3,711	3,435	4,295	6,114	5,446
2021	3,324	3,824	3,629	4,550	6,455	6,281
2022.6	2,278	3,547	2,994	4,407	5,733	5,193

자료: 농협축산정보센터 월별산지가격동향

[표 10] 한우 도체 연도별/등급별 경락가격 변화추이

(단위: 원)

구분	등급					
	구분1**평균	1*평균	1평균	2평균	3평균	전체
2011	16,749	14,666	13,265	10,497	7,883	12,782
2012	17,269	15,458	13,874	10,773	8,082	13,121
2013	16,844	14,661	13,114	10,656	8,468	12,814
2014	17,427	15,656	14,360	12,455	10,886	14,283
2015	19,121	17,649	16,301	14,392	12,653	16,284
2016	21,676	19,410	18,374	15,898	13,547	18,116
2017	20,325	18,189	16,951	13,969	11,048	16,719
2018	20,958	19,416	17,967	14,965	12,025	17,772
2019	21,290	19,788	17,922	14,778	11,649	17,965
2020	23,302	21,504	19,997	16,050	12,443	19,891
2021	25,182	22,746	20,983	16,673	12,937	21,169
2022.6	25,517	21,975	18,569	14,211	10,849	19,644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꿈을 현실로 만드는 다이어리 성공법

## 하루 15분 다이어리 기록 '당신의 삶이 달라진다'

새해가 시작될 때면 많은 이들이 다이어리를 주고받는다. 다이어리를 펼치면 다가올 한 해가 날  
짜별, 월별로 한눈에 들어온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러 장의 빈 메모 노트도 있다. 하얗게  
비어 있는 다이어리를 어떻게 채울까. 올해는 정말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써봐야지. 그래서 연말  
엔 내가 쓴 다이어리를 펼쳐보며 한 해를 뿌듯하게 돌아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다이어  
리를 잘 쓸 수 있을까.

출처 : 국민일보, 동아닷컴, 아크로펜

다이어리 존재 이유는 시간-목표관리  
과거보다 미래의 계획을 적고 지켜야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는 게 우선  
계획 기록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

### 꿈을 종이에 쓰면 이루어진다

인크루트가 서울경제신문과 함께 직장인 8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  
꼴(68.5%)로 메모를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메모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는 다이어리가  
40.6%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25.9%), 수첩(19.3%), 포스트잇(7%)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의 장점으로서는 '잊기 쉬운 아이디어를 오래 기억하게 해 준다'는 응답이 72.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단순한 생각을 구체화시켜준다'(17.9%), '진부하지 않은 새  
로운 아이디어를 찾게 해준다'(6.7%)는 의견도 있었다.

메모하는 습관이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는 답변이 각각 65.0%와 33.6%로 대다수가 메모를 긍정적으로 여겼다. 메모를 효율적  
으로 활용하려면 메모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카토 겐지는 저  
서 '메모의 기술'에서 메모의 7대 원칙을 제시했다.

#### 메모의 7대 원칙

1. 언제 어디서든 메모하라.  
-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록한다. 늘 지니고 다니  
는 것, 항상 보이는 곳에 메모한다.
2.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라.  
- 일 잘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따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내용,  
사고방식, 언어 습관 등을 기록한다.
3. 기호와 암호를 활용하라.  
- 자신에게 쓰기 편하고, 보기 편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을 찾는다.
4. 중요한 사항은 한눈에 띄게 하라.  
- 중요한 사항은 밑줄, 동그라미, 색깔 볼펜을 활용한다.
5. 메모 시간은 따로 마련하라.  
- 출퇴근 시간, 명상, 여행 등 자기만의 메모 시간을 만든다.
6. 메모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라.
7. 메모를 재활용하라.  
- 메모한 것을 버리지 말고 일정 기간 보관한 후 다시 읽어 본다.

## 형식파괴 노트 등장... '나만의 기록창고' 만들자

키보드나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펜 사용이 쉽지 않다. 하지만 쓰기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내용이 길거나 번거롭다면 스케줄만 적어도 된다. 흩어져 있는 메모는 다이어리 하나에 모아 두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리더십센터에 따르면 주간이나 일일 계획을 세워 놓으면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일 이 생겨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된다. 일일 계획은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가정에 서라면 자녀와 대화하기, 일찍 퇴근하기 등이 포함된다. 또 아침 꼭 챙겨먹기, 계단 오르 기 등 건강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주말 계획에는 양가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가족회 의, 예배 참석 등을 적어보자.

리더십센터 관계자는 "자신의 계획을 기록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다"며 "다이어리 작성에 하루 15분만 투자하고 관리해 보면 곧 달라진 삶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어리를 계획 용도로 쓸 필요는 없다. 요즘 다이어리엔 달력 표시만 있고 날짜가 인쇄 되지 않거나 아예 노트형으로 만든 다이어리도 있다. 그때그때 생활의 감상이나 느낌을 적거나 사진이나 그림, 영화표, 영수증 등을 모아놓으면 나만의 '기록 창고'가 될 수 있다.

## 과거보다 앞으로에 무게

가장 자주 저지르는 과오는 다이어리에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다. 일기는 하루 동안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적는다. 그러나 다이어리는 앞으로의 시간과 목표를 관리하 기 위한 것이다. 다이어리에는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계획에 대해 적는다.

다이어리를 쓰는 것이 습관화되기 전에는 미리 계획하고 기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려 때는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침에 출근하자 마자 10분, 혹은 잠자기 전 10분 동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다. 계획 세우 기를 반복하다보면 어느덧 시간을 앞서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생활의 감상이나 느낌을 적거나  
사진·영수증 등 나만의 '기록창고'

## 2개월 장기레이스... 꾸준함이 '관건'

아날로그 다이어리를 구입했어도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자신에게 맞는 다 이어리를 골랐다면 꾸준히 기록하고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다이어리의 가장 큰 존 재 이유는 시간과 목표 관리다. 과거보다는 미래의 계획을 적고 지켜야 한다. 이때 꾸미기는 최소화하자. 꾸미는 데 힘을 쏟을 필요는 없다. 목표는 실천 가능하게 적 어보자.

목표를 잘 쓰는 것만으로는 다이어리를 100% 활용한다고 볼 수 없다. 세운 목표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실천 여부는 'V'나 'X'자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체크해두자. 메모의 기술이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메모하는 습관이다. 어떤 식이든 꾸준히 메모하면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다.

## 새해 목표 작성삼일 안되려면?

### ① 실천 리스트를 만들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천 리스트를 작성하자. 한 달 5kg 감량이 목표라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실천 항목을 3가지 정도로 정해 매일 체크해 '하루 40분 조깅', '저녁 6시 이후 금식', '하루 수면시간 8시간 확보' 등의 실천 리스트를 정해 지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② 매일 10분 규칙적으로!

다이어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자. 아침이든, 자기 전이든 일정한 시간을 정해 쓰는 것이 좋으며, 작성 시간을 10분 정도로 정해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매일 작성이 부담된다면 2~3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는 빼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③ 우선순위를 정하자!

하루에 해야 할 일의 가짓수가 복수일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우 중요, 중요, 보통으로 중요도를 표기하고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적다.

### ④ 달성상황 표기는 필수!

계획의 진척상황을 잘함, 중간, 못함 등으로 표시하면 한눈에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다음 일정을 세우기가 쉽다. 매일 체크해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 ⑤ 다이어리는 형형색색으로!

여러 색상의 펜을 구비해 중요 체크 포인트들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필요에 따라 스티커나 포스트잇을 이용해 부가적인 설명을 적어 놓으면 추후에 읽었을 때 힘을 얻기도 하 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다.



## 제철음식으로 나른한 봄 즐기기



음식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은 그야말로 최고의 보약이다.  
향긋한 봄내음을 풍기면 우리의 입맛과 건강을 책임질 제철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제철 음식은 제때 먹어줘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철 음식 섭취하는 것은 중요한 일!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 입맛을 되찾아 줄 봄 제철 음식을 살펴보자.

출처 : 네이버포스트 '데일리라이프'

### 비타민C 풍부...춘곤증에 좋은 달래 피로회복·빈혈 예방에 탁월한 바지락

#### 입맛 찾아주는 쌉쌀 향긋한 냉이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봄나물 냉이.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냉이 향 가득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맛에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주는 냉이는 채소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고 칼슘, 비타민A, C가 풍부하다. 겨울에 자라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뿌리는 봄에 먹는 인삼이라고 불린다. 봄나물은 통째 먹을 경우 깊은 맛과 영양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다.



#### 비타민C 풍부 춘곤증에 좋은 달래



냉이와 함께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봄나물인 달래. 비닐하우스 재배로 언제든지 맛볼 수 있지만, 봄철 달래는 매운맛이 강하고 맛이 좋다. 달래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춘곤증에 좋고 비타민A, 철, 칼슘, 식이섬유, 아연 등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다. 매콤하게 무쳐 먹거나 된장찌개와도 어울리며 달래 양념장이나 전으로 부쳐먹어도 좋다. 특유의 톡 쏘는 매운맛과 향긋한 향이 좋다.

#### 피로회복·빈혈 예방에 탁월한 바지락

봄의 해산물 또한 주목할 만하다. 봄이 되면 바닷가에서는 봄철 맛은 바지락 캐기에 여념이 없다. 바지락은 알이 굵고 담백한 맛이 뛰어나며 조개 중 가장 시원한 맛을 지니고 있다. 철분 함량이 높아 여성들의 빈혈 예방에 좋으며 피로회복, 숙취 해소,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도 효과적이다.



#### 면역력 증강·항산화 작용에 좋은 딸기



봄철 과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새빨간 딸기. 맛도 달콤하고 향도 달콤한 딸기는 봄철 피로를 물리치는데 탁월하다. 특히, 붉은 빛깔의 먹음직스러운 딸기는 1월부터 5월까지 당도가 높아 더욱 맛이 좋다. 비타민C가 풍부해 피로회복에 좋고 면역력 증강과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며,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에도 효과적이다.





### 피로회복 절대강자 매실

봄이 되면 매실주, 매실장아찌를 만들기 위해 매실을 박스째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알알이 속이 단단한 봄철 매실은 새콤달콤하니 피로회복의 절대강자! 매실은 소화제 대신 매실을 마실 정도로 소화 개선에 탁월하다.

### 타우린 풍부 혈액순환 원할 주꾸미

해마다 봄이면 주꾸미 축제가 열릴 만큼 주꾸미는 대표적인 봄철 해산물이다. 봄철 주꾸미는 산란기를 거쳐 올라오기 때문에 알이 가득 차 있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주꾸미에 풍부한 타우린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 기능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특히,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다. 살이 통통하니 알이 꽉 찬 주꾸미로 봄철 활력을 되찾아 보는건 어떨까.



### 초봄이 제철인 뿌리채소 우엉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때 '우엉 다이어트' 열풍이 불었던 우엉은 겨울부터 초봄이 제철이다. 단단해 보이지만 사과처럼 아삭 아삭 씹는 맛이 매력인 우엉은 뿌리채소로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다. 당질의 일종인 이눌린이 풍부해 신장기능을 높여주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켜 주고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 봄철 입맛 회복 발에서 나는 고기 더덕

발에서 나는 고기라 불리는 특유의 향이 좋아 봄철 입맛을 회복시켜주는데 탁월하다. 제철 맛은 더덕이 품고 있는 하얀 유액은 사포닌으로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해 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므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 아린 맛이 매력적인 더덕은 무쳐 먹어도 좋고, 향이 좋아 구워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 봄철 면역력 키우는 한우요리

출처 : 한우자조금 웹진 [만들이] hanwoowebzine.com

### 초록의 봄나물을 먹어야 진정한 봄 한우 냉이 파스타

흔한 반찬 채소와  
봄나물 냉이의 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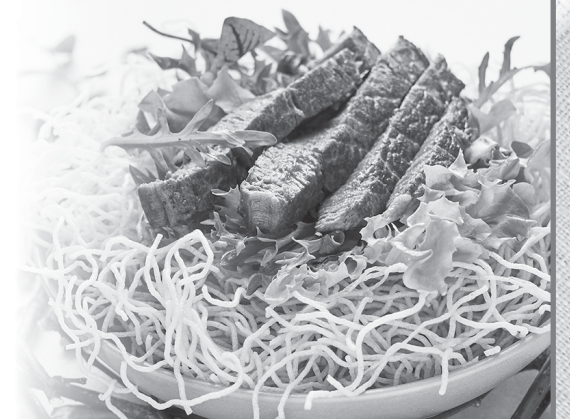
### 깨끗이 씻은 쌈채소에 따끈한밥 한술 한우 강된장 쌈밥

자작하게 졸인 강된장을 올려  
아무지게 한입~



### 부드러운 한우 안심에 바사삭 쌀국수튀김 한우 등지 샐러드

봄 타느라 없어진 입맛  
다시 살려요~





전국한우협회 대한한우사료

- 한우 사료 품질과 가격의 표준점 제시
- 농가 주도 생산·원가공개·매달 가격 연동 시행

대한한우 사료의 원료구성

옥수수, 루핀후레이크, 대두박, 옥배아박, 채종박, 야자박, 팜박, 소맥피, 단백피, 비타민+미네랄혼합제, 황토, 미생물제, 당밀향+감미제, 번식개선펜제

대한한우 고급육 사양관리 프로그램

비육 구분		어린송아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비고	
급여사료명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대한한우							
생후 월령		2~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출하월령 28개월 이상	
체중 (kg)		150		200	220	240	260	290	320	350	380	420	450	480	510	540	570	600	630	650	670	690	710	730	750	출하체중 750kg 이상	
일당증체량(kg)		0.8		0.8 - 1.0								1.0 - 1.2								0.6 - 0.8						0.84 kg	
조사료	건초	2.0		자유채식								2.0	2.0	1.0													
	볏짚											1.0	1.0	1.0	2.0	2.0	1.5	1.5	1.5	1.0	1.0	1.0	1.0	1.0	1.0		
배합사료 급여량			3.0	3.5	4.0	4.5	5.0	5.5	6.0	7.0	8.0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5	9.0	9.0	8.5	8.0		

대한한우 번식우 사양 프로그램

사육구분		번식우육성(반추위, 소화기관 완성기)							임신우														포유우	
월령 (개월)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경산우										포유중	
체중 (kg)		130 ~ 150	150 ~ 170	170 ~ 190	190 ~ 210	210 ~ 230	230 ~ 250	250 ~ 265	270 ~ 285	290 ~ 305	310 ~ 325	330 ~ 345	350 ~ 365	370 ~ 385	390 ~ 405	410 ~ 425	430 ~ 445	450 ~ 465	470 ~ 485	490 ~ 505	510 ~ 515	520 ~ 535		
일당증체량 (kg)		0.6 ~ 0.8							0.4 ~ 0.6														0.6	
1일사료 급여량 (kg)	구분	번식용 중송아지							임신우														임신우	
	배합	2 ~ 3 kg							3 ~ 4 kg														4 kg	
	섭취량	배합							배합														배합	
	조사료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조사료는 자유채식	
증감 요인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 겨울철(혹한기)과 환절기에는 10% 정도 증가시켜 줄 것	



대한한우 어린송아지				대한한우 번식우				대한한우 육성기				대한한우 비육전기				대한한우 비육후기			
적용범위 생후2개월~6개월				적용범위 5개월~임신우				적용범위 생후7개월~14개월				적용범위 생후15개월~22개월				적용범위 생후 23개월~28개월			
•미아리산과 탄닌 함유에 의한 고창증과 설사 예방				•발정과 수태를 최적으로 위한 충분한 영양소 공급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반추위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근육내 지방 발달 극대화로 육질 향상			
•천연물질을 이용한 항병력 강화				•번식전용 비타민/미네랄 설계				•골격과 내장의 발달을 촉진				•최대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있는 배합			
•반추미생물과 효모제 강화				•황토급여에 의한 미네랄 보충				•적정에너지 공급				•비타민 A 조절에 의한 고급육 향상, 육량과 육질등급 향상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식이섬유와 비타민/미네랄 강화에 의한 스트레스 완화				•성장을 위한 충분한 단백질 공급				•섬유소 공급에 의한 반추위와 소화기관 안정화				•높은 수준의 비타민과 균형 있는 미네랄 공급				•간기능과 요석증 등 비육장애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영양소 균형			
•대용유함유에 의한 빠른 입몰 이기												•비육효과를 최대로 발현시키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필요				•과비방지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구분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어린송아지	20.0	2.5	20.0	번식우	14.0	2.0	15.0	육성기	15.0	2.5	20.0	비육전기	13.0	2.5	20.0	비육후기	12.0	2.5	20.0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조회분	칼슘	인	TDN
10.0	0.9	1.5	70.0	15.0	0.8	1.2	68.0	15.0	0.7	1.2	70.0	15.0	0.7	1.2	73.0	15.0	0.7	1.2	75.0

사료가격 투명화/합리적 가격/생산비 절감

고품질 한우사료 ‘대한한우’

한우 생산비 중 농가소득을 좌우하는 사료비 비중이 50%이상!  
사료가격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 되어야 합니다

23년 4월 협회전용 사료 ‘대한한우’ 가격 안내

공장출고가 기준(운송비 등 추가비용 반영안된 가격임)

※매월 1일 환율 및 유가(곡물가) 변동 등에 따라 기준가격 변동



어린송아지  
15,125



번식우  
11,550



육성  
1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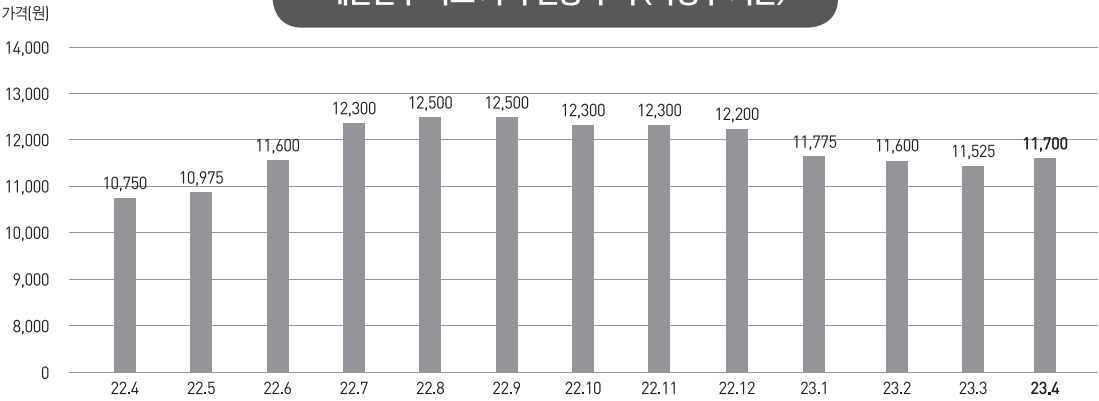


비육전기  
11,900



비육후기  
12,150

대한한우 사료 가격 변동 추이 (육성우 기준)



# 한우마당

Hanwoo Journal



전국한우협회 회원 소식지 **한우마당**은  
매달 발행되는 월간지입니다.  
**한우마당**은 대한민국 전체 한우 사육두수 약 70%에 달하는  
협회 회원과 전후방업계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연간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양질의 정보는 물론,  
축산관련 잡지 중 가장 많은 구독부수로  
높은 전파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 광고문의

- 1) 광고 문의 및 접수: 025251053@daum.net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월간 한우마당」 매체 소개 및 광고신청 안내 참고)
- 2) 광고규격: 188mm×257mm / 내부여백 7~10mm 필요
- 3) 광고금액: 홍보팀 문의 (장기계약 우대)  
※ 「한우마당」 광고업체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홍보관 메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원고 및  
광고시안  
마감

## 주요 배부처 및 일정

- 1) 협회 대의원 및 임원 등 지도자, 전국 지회·지부, 일반 회원농가
- 2)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국 각 지자체 축산과
- 3) 전국 수의대학 및 동물생명, 축산학과, 특성화 대학 등
- 4) 전국 농축협 및 관련 유관기관, 한우협동조합, 전문지 언론사
- 5) 사료 기자재 등 한우마당 광고업체



## 구독안내

**한우마당**은 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전국한우협회 홍보팀으로 문의주십시오.  
☎ 02)525-1053 (내선 202 또는 218)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https://www.ihanwoo.org>
- 한우마당 뉴스 웹진 <http://www.ihanwoo.kr>



제24권 제4호(통권 197호) / 2023년 4월 10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삼주    발행처 전국한우협회  
광 고 이기찬    제 작 HNCOM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2층  
전 화 02)525-1053 / 02)597-2377

편 집 김재광  
발 송 자산포스트  
팩 스 02)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인터넷 한우마당 [www.ihanwoo.kr](http://www.ihanwoo.kr)  
한우협회 누리집 [www.ihanwoo.org](http://www.ihanwoo.org)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전국한우협회